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8-15-2015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북문교회를 중심으로

Chan Ho Lee 이찬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찬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북문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SMALL GROUP MINISTRIES TO BUILD UP A HEALTHY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KMUN CHURCH

written by

CHAN-H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SMALL GROUP MINISTRIES TO BUILD UP A HEALTHY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KMU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AN HO LEE

AUGUST 2015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 북문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이 찬 호

2015년 8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Small Group Ministries to Build Up a Healthy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kmun Church

Chan Ho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 urgent task for the Korean church today is to regain its communal character for the sake of becoming a healthy Christian community. I think building up healthy small groups is one way to regain the church's communal character. This ministry focus paper demonstrates how a local church can recover its communal character through various small group ministries and become a healthier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the introductory chapter, presents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his study. After exploring the concept of communit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the Trinity of God and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chapter 2 explores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urch as a community.

Chapter 3 deals with small group ministry as a means of building up the church community. After describing small groups in terms of a disciple – community, family-community, and mission-community, this chapter argues that small groups can be effective for building up the Christian community. It then introduces two churches, the Houston Seoul Baptist Church and the Hwapyung Church, as examples of great small group ministries, and it examines their ministries.

Chapter 4 surveys the area of Cheongju city where the Bukmun Church is located in terms of history, geography, demography,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e. It then describe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Bukmun Church and scrutinizes various ministries that the church h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 genuine Christian community, such as Bible study, QT school, discipleship training, intercessory prayer school, Sunday school, and so on.

Chapter 5 focuses on the Bukmun Church's small group ministry. It presents a pastoral strategy for developing healthy small groups based on the "family church" model. This strategy consists of five steps: the preparatory step in which the church's vision is shared through preaching and lay leaders are selected and trained through a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the introductory step in which the church's small groups are reorganized; the transition step in which small groups are changed into family churches; the settlement step in which family churches become healthy Christian communities; and the final step in which family churches conduct various ministries such as community service, evangelism, mission, and so forth.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너무나 부족한 종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작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해주신 권문상 박사님과 최승근 박사님, 끝까지 격려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김태석 박사님, 그리고 목회를 향한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갖게 해주신 풀러신학교의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향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배태덕 목사님과 늘 닮고 싶은 목회의 멘토로 함께 지지해주신 박윤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동반자이고, 목회의 동반자로 늘 옆에서 사랑으로 지지하고, 기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 문인혜 목사, 그리고 아들 종윤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아들의 목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목회의 길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사랑하는 북문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8월 이찬호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 3

제 2 장 건강한 교회공동체 ····· 4
제 1 절 공동체의 성경적 이해 ····· 5
1. 삼위일체 하나님 ····· 5
가. 하나 됨 ····· 7
나. 페리코레시스적 교제 ····· 10
2.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공동체 ····· 11
가. 성육신적 제자도 ····· 12
나. 섬김의 공동체 ····· 14
다. 하나의 공동체 ····· 14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의 성경적 이해 ····· 16
1. 구약성경의 실례 ····· 16
2. 신약성경의 실례 ····· 18
제 3 절 요약과 정리 ····· 19

제 3 장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의 이해와 실제 ····· 21
제 1 절 소그룹과 공동체적 교회 ····· 21
1. 소그룹의 일반적 이해 ····· 22
가. 인격적인 만남의 공동체 ····· 22
나.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 23
다. 성장하는 공동체 ····· 23
2. 소그룹의 성경적 이해 ····· 24

가. 제자 공동체 ····· 24
나. 가정 공동체 ····· 25
다. 선교 공동체 ····· 28
제 2 절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 ····· 29
1. 소그룹을 건강하게 하는 가정교회(휴스턴 서울침례교회) ····· 30
가.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 ····· 31
나. 가정교회의 준비와 시작 ····· 32
다. 가정교회의 모임 진행 ····· 33
라. 전도와 선교에 효과적인 가정교회 ····· 34
마. 가정교회를 통한 유익 ····· 35
2. 소그룹을 다시 세우는 제자훈련(화평교회) ····· 36
가. 화평 교회의 연혁 ····· 37
나. 화평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 38
다. 제자훈련의 필요성 ····· 39
라. 재자훈련의 시작 ····· 40
마. 제자훈련의 과정 ····· 41
바. 재자훈련 과정 이후 ····· 42
사. 제자훈련 사역의 열매들 ····· 43
제 3 절 요약과 정리 ····· 44

제 4 장 북문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고찰 ····· 45
제 1 절 교회의 역사 ····· 45
1. 북문교회의 설립과 기반 조성 ····· 45
2. 교회의 성장과 발전 ····· 46
3.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 47
4. 본 연구자의 부임 배경과 현재의 상황 ····· 47
제 2 절 교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역의 실제 ····· 49
1. 북문가족 성경공부 ····· 49

가. 과정 ····· 49
나. 만남의 시간(수료식) ····· 50
2. QT학교 ····· 51
가. 과정 ····· 52
나. 수료식 ····· 52
3. 제자훈련 ····· 52
가.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 53
나. 제자훈련의 시작 ····· 53
다. 제자훈련의 과정 ····· 55
라. 제자훈련 과정 이후 ····· 57
4. 중보기도학교 ····· 58
가. 중보기도학교의 과정 ····· 59
나. 중보기도 사역 ····· 59
5. 새생명축제 ····· 60
가. 새생명축제의 준비 ····· 61
나. 새생명축제의 진행 ····· 61
다. 새새생명축제 이후 ····· 62
6.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 63
제 3 절 사역의 평가 ····· 64
제 4 절 요약과 정리 ····· 67

제 5 장 북문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 68
제 1 절 가정교회를 통한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 68
1. 준비기(2015년~2017년) ····· 69
가. 설교 ····· 69
나.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 ····· 70
다. 소그룹 리더 모임 ····· 71
라. 남성 소그룹 세우기 ····· 72

마. 부부 소그룹 세우기 ····· 73
바. 실버 소그룹 세우기 ····· 74
2. 도입기(2018년~2019년) ····· 75
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 75
나. 전도하는 목장으로 ····· 76
다. 선교하는 목장으로 ····· 78
라.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목장으로 ····· 79
3. 전환기(2020년) ····· 80
가. 선택과 집중 ····· 80
나. 목자 임명식 ····· 81
다. 목장 축제 ····· 82
4. 정착기(2021년~2023년) ····· 82
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 ····· 82
나. 목자를 지원하는 초원 모임 ····· 83
다. 은혜로운 주일예배 ····· 84
라. 분가 ····· 84
5. 성숙기(2024년 ~) ····· 85
가. 은사 발견을 통해 사역하는 가정교회 ····· 86
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정교회 ····· 86
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가정교회 ····· 87
제 2 절 제자훈련 통한 소그룹 리더 세우기 ····· 88
1. 심화된 제자훈련 과정 ····· 88
가. 상담자 훈련 ····· 89
나. 내적 치유 훈련 ····· 93
2. 소그룹 리더를 돕는 훈련 과정 ····· 96
가. 감수성 훈련 ····· 96
나. 부부 성장 학교 ····· 99
제 3 절 요약과 정리 ····· 102

제 6 장 결론 103

참고 문헌 105

Vita 108

표 목 차

〈표 1〉북문교회 북문가족 성경공부 기수별 인원 현황 ····· 51
〈표 2〉북문교회 2기 제자훈련반 커리큘럼 ····· 56
〈표 3〉북문교회 제자훈련 현황 ····· 58
〈표 4〉중보기도학교와 중보기도 사역의 현황 ····· 60
〈표 5〉교육관 현황 ····· 64
〈표 6〉가정교회 준비를 위한 예배 설교 계획 ····· 69
〈표 7〉소그룹 리더 수련회 프로그램 ····· 71
〈표 8〉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실제 ·····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0세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남을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의 20위권 안에 한국 교회들이 1/3이상이 포함되었다. 또한 1만명 이상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은 감소 추세에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교회들이 한국과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열방의 많은 목사, 선교사, 성도들을 통하여 듣게 된다.[1] 이러한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대형화로 인한 물량주의, 목회자의 비도덕성, 교회 안에서의 권력의 갈등과 다툼의 모습들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향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각해보면 지금 성장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면 교회의 건강성이 사회 속에 주는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외형적인 모습의 성장에만 관심을 두었고, 건강한 성장은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책임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

1)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기독일보 씨디엔, 2004년 4월 9일자. 신학면. Online:http//www.cdntv.co.kr/index.htm

요즘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지 고민하며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연구'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안의 두 그룹 중 대그룹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과 노력을 집중해 왔는데, 정작 다른 한 그룹인 소그룹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관심과 집중을 해 왔지만, 그에 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목장, 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 안의 두 그룹이 함께 잘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소그룹은 흔히 생각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생활과 같은 선택 활동이 아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커지고 성장할수록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소그룹에 있다는 것이 연구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2)]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일체감을 갖고자 한다.[3)]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면서 대그룹과 소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일체감을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에서 가능하다. 소그룹에서 삶의 나눔과 회복이 있을 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때 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눔과 회복을 경험하고 일체감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교회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논문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소그룹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33.
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도서출판 브니엘, 2006), 177.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먼저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공동체적인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북문교회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현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이론적 기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제자공동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적 교회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북문교회의 배경과 현재 목회와 사역들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북문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공동체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교단 분열의 아픔 속에서 성장해 온 발자취가 있다. 그리고 이 분열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장로교만 150여 개의 교단이 있다고 한다.[4] 이렇게 한국 땅에 수많은 교단이 우후죽순 격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해방 이후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분열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신학적인 이유로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그 외의 많은 경우에 많은 교단들이 각자의 교단의 유익을 위한 교권이 관련되었기 때문이다.[5]

물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교단들이 통합하는 사례들이 있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교단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진정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단의 통합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더 큰 교세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교단분열의 모습이 게 교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왔다.

한국인은 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의 속성이 항상 그렇듯이 자기 집단과 남의 집단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리고 내집단의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 행동이 다른 집단에게 어떠한 해를 끼쳐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자기와 고향이 같거나 출신 학교가 같은 사람에게는 별의별 편의를 다 베풀지만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

---

4)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52.
5) Ibid, 53-54.

며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할 때가 많다.[6]

이러한 유교 문화는 고스란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성경적인 공동체 사상은 사라져버리고 패쇄적 가족주의와 장유유서라는 서열 문화 정신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모습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에 따른 토론의 부재, 대화 소통의 어려움 등이 한국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켜서 분열에까지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7]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교회와 교인들을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면서 같은 교회, 같은 소그룹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지극히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더 나아가서 삶의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할 일을 외면하고 교회의 내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낳게 되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공동체의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8] 그리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9]

1.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

6)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9). 120.
7)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67.
8)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174.
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37.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술을 통해서이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요 10:38; 14:10, 20)라고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시기에 하나님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계시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은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힘과 생명을 주시는 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다(요 14:16). 그리고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신다(요 14:26).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이다.[10]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세 구절만 살펴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성삼위로 계시되며 그분들이 영원한 하나 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공동체로부터 다른 모든 공동체가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1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전폭적으로 상호 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적 존재로 계시는 것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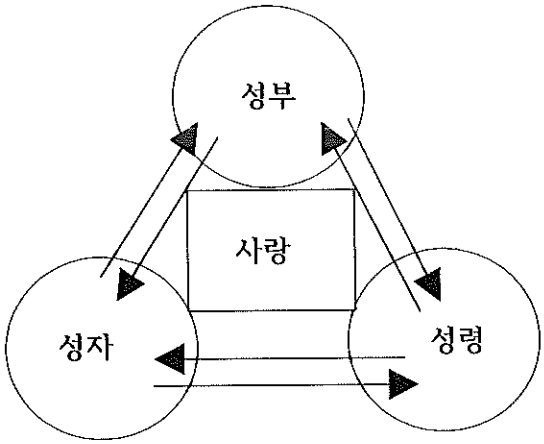
이렇게 삼위 하나님 인격체들이 분명히 독자적으로 실존하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각각의 생각과 의지를 상호 주고받음으로써 순환하게 되어 성부의 생각은 이미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의 생각은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의 생각은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한다는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8세기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그 당시 하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서방신학과 세 위격을 더 강조하려는 동방 혹은 안디옥 신학을 둘 다 아우르는 개념인 페리코레시스, 즉 침투 혹은 순환의 개념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

---

10)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183-185.
11)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17.
12)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38.

님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삶(intra-trinitarian hospitality), 즉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어주며 서로 감싸 안고 포용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13] 공동체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공동체적 삼위일체 하나님[1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주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교회를 돌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15]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

가. '하나 됨'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 됨 안에서 존재하셨다. 그래

1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1.
14) Ibid, 249.
15)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77-178.

서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창조 결과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 됨의 모습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하나 됨을 가지게 되었다.[16]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다시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듯이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다.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여자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하나 됨'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즉, 이 두 생명은 각자의 완전한 생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 몸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말이다.[17]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 된 부부가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18]

성경에서 사람의 '하나 됨'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를지로다"(창 2:24)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 하나 됨을 말한다. 바울은 몸의 개념을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한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엡 4:16)라는 구절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교통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성장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충성하는 몸을 묘사하고 있다.[19]

또한, 새로운 공동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

16)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5.
17) 방현덕, *기독교 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85), 20.
18) Gary R. Collins,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84), 87.
19) 장로회신학대학 다원화목회연구원, *기독교 가족상담*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14-15.

진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는 그분께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팔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엡 2:13).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엡 2:14)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적대감과 소외를 종결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그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수평적 포용의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이루었다.[20]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성의 창조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한 사람뿐이었을 때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 됨도 없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마침내 하나 됨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가 홀로 있는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와서' 그들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된 것이다.[21]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에서 볼 때 하나님은 홀로 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그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에게 적용된 "돕는 자"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에쩰**"은 구약전체에서 21회 사용되지만, 이 중 세 번을 제외한 18회는 모두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리고 그 세 번 중 한번은 "민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은 위의 본문에서 남성 명사이면서도 "여자"에게 적용해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아담의 돕는 자 "**에쩰**"은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대행하는 자라는 개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을 조력해야 한다는,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서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돕듯이 그렇게 협력하고 돕는다는 뜻이다.[2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남자가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여자는 그 나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남

---

2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37.
21) Ibid., 21.
22) 김이곤, *창세기* (서울: 전망사, 1993), 22-27.

녀 각각이 50퍼센트씩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정확하게 반반씩 균등을 이루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남녀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관여하는 정도는 각각 100퍼센트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100퍼센트와 여자에게 주신 100퍼센트를 쏟아 부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그들이 공유한 모든 임무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 됨의 섭리에 있어서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창 2:24),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1+1=1과 마찬가지다.[23]

이것은 인간이 좀 더 넓고, 좀 더 적극적인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존재"(Co-Humanity)라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은 결코 단독자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고도 상호 구원적인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4]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페리코레시스적 교제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 계시는 것이지 개인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일 수 있지만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한 것이고, 관계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25]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부부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몸의 비유(엡 4:16)에서처럼 유기적으로 상호 교제하는 실체를 사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 안에서 책임을 지고 상호 의지하는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를 하며 사셨다.[26]

핸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사귐 또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은 신자들 서로 간의 사귐의 창조적 바탕이며 기둥이다."라고 하였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할 만한 영적 교통과 사귐은 성령에

23)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23-24.
24) 김이곤, *창세기,* 27.
25)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41.
26) Ibid., 251.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27]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피상적인 사회적 사귐을 나타내는 교제(fellowship)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를 경험하는 교제인 것이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의 사귐을 통해서 공동생활을 하시고, 함께 일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제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교제였다.

이렇게 하나 되는 교제는 자연적으로 의사소통을 시사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함께 모여야만 한다. 그래서 강단 대 객석이라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 방법만을 위해 계획된 전통적인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 속에서 함께 모일 때 성도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코이노니아는 열매를 맺게 된다.[28]

그리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때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 한 성도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사랑으로 잘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 잘 경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다른 어떤 큰 그룹보다 더 상호간의 긴밀함과 깊은 유대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부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말

27)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99.
28) Ibid., 105-106.

씀에서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위대하심에 감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가능해졌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29]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다. 위 세계의 본질인 진리가 아래 세계의 물질인, 즉 육신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아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사는 아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순전히 은혜의 사건이다.[3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주님의 성육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성육신적 공동체이다.

가. 성육신적 제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계속할 그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몸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 사역이 계속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31]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직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미숙함과 불신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나

---

29)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42.
30) Ibid., 41-42.
3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126.

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선언하시는 가장 권위 있는 파송을 단행하셨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을 당부하셨다(마 28:18-20).[32]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대사명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육신적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그곳에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3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 관계성을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삶에 함께 연합하여 그의 몸에 붙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전체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에 대하서는 죽었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롬 6:2-4)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에 붙여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하는 것이다.[34]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수직적인 관계성과 지체를 이루는 성도 간의 상호 간의 관계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35]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에 개념은 두 가지의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고

---

3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8.
33)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서울: 여수룬, 1991), 105.
34)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34.
35) Ibid., 35.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교회는 성육신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계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 현존하신다는 것이다.[36]

나.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갖게 될 위치와 앉게 될 자리를 두고 누가 더 큰가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 긴급한 교훈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첫째가 되려고 투쟁하거나 권력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인 섬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37]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권위의 모습을 배제하시면서, 후에 제자들 사이에 있게 될 상호 섬기는 관계의 모델로서 스스로 고난 받는 종의 본보기가 됨을 언급하셨다(마 20:26-28).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향한 그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이 개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공동체 속으로 연합시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다.[38]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지만 자원하는 종이다. 제자는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다. 제자는 기쁨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기쁨으로 따르면서 세상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9]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는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 하나의 공동체

---

36) 김현진, *공동체 신학*, 36
37)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66.
38) Ibid., 173.
3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67.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하나 됨의 공동체로서 정의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엡 4:16) 것이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평등과 사랑의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로의 성도들은 성별, 신분,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다. 교회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를 갖는다.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이 권위주의로 이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단으로 인해 심각한 투쟁 중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장로나, 감독, 집사들로 하여금 위기를 처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단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고 말했다.[40] 교회는 수직적 계급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리적, 사회적, 성적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갈 3:28)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고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공동체의 모델은 개방형 공동체이다.[41] 개방형 공동체는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교제 공동체)에서 잘 표현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치유적 모델이 나타나기도 한다. 에베소 교회나 그레데 교회가 그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들 교회는 수평적 리더십이 아닌, 강력한 수직적 위계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강력한 치유가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는 적대 세력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적인 지도자들이 요구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교회의 상황에서는 충성되고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2] 이런 수직적인 위계 구조는 선택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공동체의 참여라는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를 향해 변화되어야 한다.[43]

---

4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23.
4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21-222.
42) Ibid., 227.

그러므로 신약의 공동체는 보편적으로 개방적, 참여적,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기초한 수평적 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상호 평등한 존재로서, 친밀한 사랑의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사랑의 섬김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의 성경적 이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도 자연적으로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실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적으로 가족적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44]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교회의 모습 속에 더 분명하게 공동체적인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공동체와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공동체적 교회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적 교회를 원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구약성경의 실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인간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할당된 책임의 분량이 커져 아담 혼자 동산을 돌보기에 충분치 않았다. 이제 동산에는 두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확장되어야 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43)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227.
44)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7.

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두 사람 모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며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에서 함께 종이 되어서 공동체의 사역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45]

구약 성경의 공동체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 근원적인 동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46]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를 결속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 개념, 가족 개념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동족이라고 했다(레 25:25, 35, 39, 46-47; 신 15:12; 렘 34:9, 겔 18:18). "골육지친"(창 13:8, 29:14, 37:27, 레 18:6-9, 21:2-3; 삿 9:1-2; 삼 19:13)이란 용어와 "형제"라는 호칭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의식하게 하고, 가족적 친밀성을 갖게 했다. 또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했다.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에게 빚이 있다면 다 탕감하도록 했다(신 15:1-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했다. 면제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인간 존중 사상을 보여준다(신 15:7-11). 안식년과 같은 원리로 희년(신 15:12-15)의 제도 역시 인간 존중의 사상을 보여주며 한 형제로서 공동체적 삶을 보여준다.[47]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적 공동체에 대해서 명한 말씀이 많이 있다. 꾸어준 돈에 관해 변리를 취하지 말아야 했고(출 22:25), 전당 잡은 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으며(출 22:26-27), 안식년(제 7년)의 소출은 다른 사람이 먹도록 배려해주어야 했고(출 23:11), 곡물이나 포도원의 소출은 다 거두지 않음으로써(레 19:9-10)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구제해야 했다(레

45)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85-86.
46)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73.
47)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16-219.

25:35-36).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동족을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난을 전체 공동체의 고난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죄를 전체의 범죄로 보기도 했고(수 7:1),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지파의 이익을 잠시 유보하기도 했다(수 1:12-18).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실현하게 하셨다.[48]

2. 신약성경의 실례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진정한 교회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약의 공동체는 가족적 공동체이다. 신약의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와 같이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갈 4:5-6).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한 가족이 된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비유했다.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사역을 하는 공동체 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은 가족과 관련된 말을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신약 교회들은 주로 사람들의 집에서 만났다(행 2:43; 16:40; 20:8; 롬16:5; 고전 16:19; 골 4:15; 몬 2절). 또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본래 회심한 가족들을 기본으로 하여 교회를 세웠다(행 11:14; 16:15, 25-34; 18:18). 그들이 새운 가정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였다(롬 16:23; 고전 11:18, 33). 이러한 교회 구성원간의 결속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유사하다(롬 16:2, 13; 갈 1:2; 4:19; 골 4:9). 또한 교회 공동체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 된다(갈 6:10; 딤전 3:15; 엡 2:19). 바울은 교회의 가

48)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20-221.

족은 남자, 여자, 주인과 노예, 다양한 인종이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의 동등한 가족적 공동체의 다양성을 강조했다.[49]

바울은 이 가족적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 원리가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전 13:1-7). 사랑은 가족적 교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최고의 능력이다.[50] 사랑은 상호 의존, 상호 존중,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정의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다른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 됨과 사역 사이에 강한 상호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 됨과 사역,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구성원이 아무도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고 온전히 참여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51]

그러므로 공동체의 형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철회 불가능한 필수 요소이며,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거룩한 명령이다. 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형상을 배반하는 것이다.[52]

제 3 절 요약과 정리

성경에서 나타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에 공동체적 교회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하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적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더 나은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보여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 됨'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에

---

49) Robert Banks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2003), 51-53.
50) 권문상, *부흥 에게인 1907*, 223.
51)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17.
52) Ibid., 28.

대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공동체적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적 교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원리인 '사랑'을 중심으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인 소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동체적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오늘날 세워나가야 할 공동체적 교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 3 장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의 이해와 실제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교회란 단지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예배는 교회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배는 교회 생활의 한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다보는 것만을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53]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 할 '하나됨'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곳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54] 그래서 본 장에서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갖는 의미와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소그룹과 공동체적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일반적인 소그룹의 의미와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3)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66.
54) Ibid., 67.

1. 소그룹의 일반적 이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소그룹을 구성하는 인간의 이해와 관계의 이해와 그리고 소그룹이 무엇을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 인격적인 만남의 공동체

기독교 의사소통은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 교회 안에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그러나 교회의 대그룹에서 가능하지 못한 인격적인 만남이 소그룹에서는 가능하다. 소그룹에서는 대화가 인격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55]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모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종종 환자의 몸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었다.[56]

실제로 본 연구자도 그 동안 교회에서 소그룹 제자훈련을 하면서 훈련생인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서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눈 적이 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나면 1년 후에 훈련이 끝난 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구역이나 목장에서는 더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구역이나 목장에서 그룹원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다가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회복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

55)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57.
56) Donald S. Whitney,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103.

나.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에는 사랑이 있다.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속한 소그룹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은 신뢰와 더불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셨던 방식이기도 하다. 소그룹 안에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은 그 소그룹을 더 든든히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소그룹에는 돌봄이 있다.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소그룹에서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함께 채워나감을 뜻한다.[57] 건강한 소그룹에서는 초대교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필요들이 나눔과 섬김의 행위들을 통해 채워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그룹 속에서 가시화되는 것이다.

다. 성장하는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과 그 그룹의 구성원은 성장한다. 소그룹은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며, 동시에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소그룹은 탄생, 성장, 퇴보,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여느 생명체와 같은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트레버 타이슨은 소그룹을 유기적인 조직체로 바라보고 활동 단계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58]

첫째 단계는 형성기이다. 조원들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기대와 소망,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갖는 소그룹 초기의 모습이며, 이때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소그룹은 목적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리더는 조원들에게 안정감과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격동기이다. 조원들의 개인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긴장이 생기고, 소그룹을 제어하려는 조원들이 생겨난다. 활동의 정체와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 혼란, 좌절, 의욕상실을 느끼고

57)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47.
58)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134-135.

넹담해지기도 한다. 갈등 관리 능력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셋째 단계는 정상기이다. 격동기를 잘 이겨내면 조원들이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안정감과 자유를 느끼며 소그룹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조원들의 리더에 대한 의존이 덜해지고 조언자, 격려자로서 리더를 바라보게 된다. 넷째 단계는 활동기이다. 조원들 각자의 소그룹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면서 갈등이 간혹 표출 되더라도 전보다 잘 해결해 나간다. 조원 개인의 필요, 소그룹의 과업, 그룹 활동의 유지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열매맺는 소그룹의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단계는 종료단계이다. 소그룹 초기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취했음에 동의하는 시점에 소그룹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때 리더는 조원들이 느끼게 될 기쁨, 슬픔, 아쉬움에 대해 인식하고 격려,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소그룹의 종료를 계획한다. 각 단계들은 퇴보와 정체의 시기들을 맞으면서 불규칙하게 진행되며 정확하게 단계들을 구분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유기체로서의 소그룹은 그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2. 소그룹의 성경적 이해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 가져야 할 본래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소그룹 안에 회복해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과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한 초대교회의 소그룹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을 감당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자 공동체

성경에서 소그룹의 실현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12명의 소수의 인원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말씀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수 정신의 계승자들이 되어 예수

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참 제자들이 되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참여한 제자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다시 세분화된 소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들의 명단기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소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두 번째 소그룹은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이며, 세 번째 소그룹은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룟유다'와 같다. 중간에 순서는 바뀔지라도 항상 세 그룹의 머리는 베드로, 빌립, 야고보가 각 소그룹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59] 이렇게 12명의 제자 소그룹을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더 적은 소그룹으로 나누셔서 더 긴밀한 양육과 교제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소그룹에 대한 안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소그룹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성경에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가족의 숫자이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명은 단순히 제자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즉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생명과 죽음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6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4-35)고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가족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의 태도를 본받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세우신 목적이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일기장 한 줄 남겨 놓지 않으셨고 자기를 기념할 돌비 하나 세워 놓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남겨 놓으신 유일한 유산은 예수님께 배운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 뿐이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걸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61]

나. 가정 공동체

---

59)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26.
60)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157.
6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8.

소그룹은 기원후 2세기까지 교회 생활의 기본 단위였다. 그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개인 집 또는 지하 무덤에서 만났을 것이다.[62] 초대교회가 주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회를 자유롭게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지어 함께 모여서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가정 중심의 종교 행사 문화를 갖고 있었기에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사회 문화를 따라서 가정에서 모였던 것이다.[63] 그래서 성경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교회적인 성격을 부여했고(고전 16:15),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문안하라고 하면서 가정이 곧 교회임을 발했다(롬 16:3-5).[64]

실제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였는가를 살펴보면, 보통 중앙에는 틀이 있었으며(부유한 집은 뜰만 세 개나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집은 손님방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가정집과 비교하면 제법 큰 집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 뜰은 55평방미터였고 식당은 약 36평방미터였는데, 의자를 치우면 식당은 약 2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뜰은 약 5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30~40명 정도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큰 건물에서 모이기 전까지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소규모로, 혹은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가정 교회 형식을 이루며 계속 발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교제에 있어서 친밀도를 높이고 더욱 심화된 가족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5]

초대교회가 가정 교회의 형태로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은 소그룹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해져서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함

62)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54.
6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2.
64) Ibid., 261.
65) Ibid., 263.

께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사람들의 성품과 변화와 영적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66]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 소유자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위계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동역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위계적 리더십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어 감독이 있는 교회는 항상 여러 감독들로 구성되었으며(빌 1:1, 딛 1:5-7) 장로도 '장로의 회'(딤전 4:14)처럼 집단 체제였지 일인 중심의 조직이 아니었다. 특히 장로가 점차 목회적 위치로 발전했음을 볼 때 초대교회에는 한 명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이 팀을 이루어 한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67]

초대교회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정교회의 소그룹 행사 중의 중요한 주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행 2:46) 것을 초대교회가 계속한 것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먹는 사랑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만찬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8] 이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시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제자도를 재확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마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체험한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가정에 모여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눔에 있어 공동 식사는 지체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구체화하게 하는 데 적합했다.[69]

로버트 뱅크스는 공동체적 교회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공동체의 식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어두운 측면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식탁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기대하게 한다. 여기서 슬픔과 웃음, 묵상과 대화, 존경과 친절, 말과 행동, 먹는 일과 나누는 일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 속

66)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67.
67)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4.
68)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62.
6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5.

> 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성도들의 교제를 경험한다. 본래 식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삶에 모셔 들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식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70]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친밀감을 느끼며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식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식사할 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과 일체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 선교 공동체

신약의 가정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합당한 형태였다. 신약의 가정교회는 초기 선교 전략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을 제공해 주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의 핵심에는 가정이 있었다. 바울은 교회 생활과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곳을 가정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그의 주요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얻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 가정을 그 지역의 선교 중심지로 삼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지로 삼았다. 가정교회는 복음과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때 겪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시대에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역할을 가정교회가 담당했다.[71]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 고린도의 회당 건너편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과 간수장의 집은 모두 각 도시의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더구나 초대교회 당시는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일도 했기 때문에, 교회와 현장의 연관성은 오늘날 보다 더 밀접했다고 볼 수 있다.[72]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

---

70) Robert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65.
71) Rad Zdero, *Nexus: The World House Church Movement Reader*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7), 67.
72) Ibid, 63.

했다. 가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들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했다. 때로 신변에 위험이 올지라도 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복음 전파를 쉬거나 나중의 일로 미루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교회는 더 없이 좋은 선교의 전략지점이 되었다.[73]

제 2 절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다. 한 날개는 대규모 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교회는 이 두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74] 그런데 그동안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두 날개 중에서 한 날개인 대그룹의 예배는 중요시했지만, 다른 한 날개인 소그룹의 공동체를 소홀히 해왔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한쪽의 날개에 치우친 불균형한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에티오피아의 메노나이트 교회 이야기이다.

에티오피아에서 메노나이트 교회는 1982년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전복된 후 교회를 향한 핍박을 받았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그들의 건물과 소유를 전부 압수당했다.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투옥되었고 구성원들은 접촉이 금지되었다. 교회는 공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공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회도 없이 지하로 숨게 되었다. 지하에 숨어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들을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큰 소리로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다. 10년 후, 1992년에 공산 정권은 교회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한 채 전복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를 위해 남아 있는 교인들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5,000명이었던 교인 수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

73) David W. Shenk and Ervin R. Stutzman,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297-299.

74)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2.

50,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75]

이 이야기는 소그룹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밑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 또한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소그룹의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 교회가 오늘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신약에 나타난 가정 교회들이 공동체적인 교회의 상을 가장 잘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모범적 교회 공동체인 가정 교회를 계급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로 제안하고 있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76]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소그룹 중심의 개방형 가정 교회는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다. 가정 교회의 핵심 구조는 소그룹이고, 성장의 핵심에는 목회 리더십이 있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정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한 휴스톤 서울침례교회와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화평 교회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소그룹 중심의 구조와 리더십 개발이 가정 교회의 핵심 요소이고,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소그룹을 건강하게 하는 가정교회(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근에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대형화와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가정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대 사명(마

75)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7.
76)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0.

28:19-20) 속에 있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가정 교회이기 때문이다.[77]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했던 최영기 목사는 가정 교회 시작을 목회적인 필요에서 출발했지만, '신약의 원형 교회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정 교회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정 교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78] 최영기 목사가 말하는 가정교회의 사명은 '온 세계의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비전은 '온 세계의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이 성서적으로 구분되고, 생활화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며, 삶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들이 재생산되어, 이를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보는 것'이다.[79] 이것은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교회를 통해서 재현되는 모습을 꿈꾸면서 가정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비전이라고 하겠다.

가.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인 가정교회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가정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사역을 다한다고 해서 그들의 스타일과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정신과 생명의 역동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80]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와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

7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47-48.
78)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0.
79) 가정교회사역원, "가정교회 사명, 비전", Online: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info/info02_1.htm
80)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Urbana: Albatross, 1986), 44-46.

로버트 뱅크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쓴 책에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상황은 "교회 내에서 관계유형이나 권위계통이 다르고 교회 모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상화하거나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는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81]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살려나가되 모임의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어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나. 가정 교회의 준비와 시작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있는 기존 교인들의 저항을 예상해야 한다고 최영기 목사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역조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인들은 반발하고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반발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하면서 나아갈zzzz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설교와 주보에 있는 목회자 칼럼과 리더 모임 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갖는 것도 좋다. 또한 리더들과 함께 가정교회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82]

가정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가정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개적인 선출방법으로 교회나 목회자의 추천 없이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격만을 교인들에게 공고하고, 자격에 합당한 지도자 후보 3명이나 4명의 이름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적어내게 한다. 이것은 어

81)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47.
82) 가정교회 사역원, *제30차 목회자 초청 가정 교회 세미나 자료집*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사역원, 2006), 7-8.

떤 후보 한 사람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함께 선호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목회자가 지도자 후보를 선정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자신의 지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역시 3명이나 4명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적어 내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교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도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그 책임감을 더해 준다.[83]

가정교회의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고, 가정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목자'라고 한다. 목자는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그리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목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목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 중인 사람을 '예비목자'라고 한다. 목원의 숫자가 12명이 넘으면 분가를 해서 가정교회를 둘로 나누는데, 분가에 대비해서 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비 목자'라고 한다. 예비 목자는 목원들이 추천하여 교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가정 교회가 분가할 때는 목원 전체를 예비 목자에게 물려 주고 목자는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을 데리고 나와서 새롭게 가정 교회를 개척하도록 한다.[84] 또한 가정교회 안에는 은사별로 맡고 있는 직임이 있는데, 새가족 부장, 찬양 부장, 전도 부장, 선교 부장, 친교 부장, 중보기도 부장 등이 있어서 가정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85] 이것은 '전체 성도의 사역화'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은사를 발굴하는 일이 곧 개인은 물론 전체 공동체의 사역의 장을 넓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의 소외감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86]

다. 가정교회의 모임 진행

일반적인 구역모임에서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가정 교회 목장

8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3.
84) Ibid., 92.
85)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16.
86) Ibid., 139.

모임의 주된 활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진솔하고 솔직한 삶을 나누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회의 분위기는 목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목장 모임은 보통 주말 저녁에 모인다. 먼저 식사를 함께 한 후에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때 성경 공부는 짧막하게 20분 동안만 한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을 나눈다. 그리고 삶을 나눈 후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나눔의 시간에 나눈 것 중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는 시간이 '선교 도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도 읽고, 전도 대상자 심방 보고도 하며, 선교 회비를 걷기도 하면서 목원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가정 교회가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사교적인 모임이 되지 않고 함께 제자로 서기 위한 모임이 되기 위하여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고 목장 모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87]

목장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 때 지난 주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목원들과 함께 나눈다. 목원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한마디씩 하도록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노출시켜서 문제를 드러낼 때, 구체적인 도움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켜서 이야기할 때 다른 목원들은 상식적인 대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잘 공감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증과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나눔이 억지스런 분위기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88]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나누게 되면 목장 모임이 더 깊은 인간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목원들이 목장 모임에 오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게 된다. 목장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고 싶고, 서로 보고 싶은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 전도와 선교에 효과적인 가정교회

87) 가정교회 사역원, *제30차 목회자 초청 가정 교회 세미나 자료집*, 12.
8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81-83.

가정교회가 전도하기에 효과적인 것은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목장 모임에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이벤트는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놓음으로써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행사 때 초청할 수 있다.[89]

가정교회의 각 목장마다 선교사들을 한 명씩 후원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지역 교회와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교사를 선정할 때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목장에서 각자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각 목장마다 선교사 한 명씩을 후원하도록 할 때에 얻어지는 유익이 많다. 가장 큰 것이 교회 전체의 선교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후원 선교사를 위하여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고, 함께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90]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는 목장이 되게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장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모두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 매 주일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사람들의 등록이 이어지고, 매달 새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목장의 에너지가 영혼 구원에 집중될 때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있어야 목장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생동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91]

마. 가정교회를 통한 유익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물론

8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40.
9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13-114.
91) 조태환, *환희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83-84.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성경대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가정교회 운동이다. 교회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교회의 특정한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데 우선을 두는 것이 가정교회이다.[92]

교회에 가정교회가 정착되면 목회자는 본연의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의 사역이 바쁘고 분주한 다른 사역들 때문에 지장을 받았다면,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면서 목회자는 자신의 본연의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 된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게 될 때 교회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93] 또한 이렇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는 교회가 된다. 사소한 일들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의하는 분위기가 가정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에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가정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두터운 신뢰의 분위기가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잘 조율할 수 있게 된다.[94]

2. 소그룹을 다시 세우는 제자훈련(화평 교회)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자 할 때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 그것은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를 잘 세우면 그 사람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

92) 최영기, "가정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54-55.
9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86.
94) 조태환, *환희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160.

그로 인해서 '가정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이다.

가. 화평 교회의 연혁

최상태 목사는 그의 가족과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비전을 품고 1988년 1월 30일, 고양시 원당에 화평교회를 개척하였다. 화평교회를 개척할 당시, 고양시 원당 지역은 인구 5만 정도의 농촌과 유사한 읍 소재지였다. 1년을 지내면서 교인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개척한지 5년이 지날 무렵부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화평교회가 위치한 원당 지역의 인구도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고양시는 80만 명이 넘어섰다. 화평교회는 2-3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성장해갔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제자훈련 사역이 더욱 활발해졌고, 1998년 이후부터 제자훈련에 기반을 둔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95]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과정에 대해 최상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96] 개척 이후 5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이유에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 경험 부족과 훈련할 준비된 제자가 부족,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1994년 3월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석해 제자훈련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한 결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최상태 목사는 제자훈련과 가정 교회는 아귀가 잘 맞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말한다. 즉 제자훈련은 동력을 전달하는 축과 연결된 톱니바퀴이고, 가정 교회는 제자훈련이란 톱니바퀴를 통해 동력을 전달받아 또 다른 톱니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제자훈련이라는 '토양'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정 교회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평교회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전도폭발반, 기도헌신자 학교, 교사훈련반 등의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힘쓰고 있으며, 부부성장반, 부모역할반 등 각 그룹 모임과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하여서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다.[97]

---

95)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7-38.
96) Ibid., 39-42.

나. 화평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화평교회는 건물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중심의 교회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생명력 있는 단순하고 실제적인 사역에 집중한다. 각종 회의를 줄이며 생산적인 사역과 관계에 집중한다.[98]

화평교회가 설립 이후 가졌던 비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9]

> * 1988년~1993년 -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 * 1994년~1997년 -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 선교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 * 1998년~2001년 -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

그리고 현재 화평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모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에 사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넷째, 세계 각 곳에 수 백 명의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협력하는 것이다. 다섯째, 건강한 모델 교회로 성장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것이다. 여섯째,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곱째, 화평의 가족들이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경험하는 좋은 영적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100]

이러한 교회의 비전은 최상태 목사의 목회철학에서 비롯된다. 최상태 목사의 목회철학은 다음과 같다.[101] 첫째,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교회이다. 둘째, 성경에 기반을

---

97) 화평교회, 화평교회 홈페이지, Online: www.hawpyung21.org
98)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3.
99) Ibid., 53-54.
100) 화평교회, "화평의 비전", Online: http://www.hwapyung21.org/default/aa/sub2.php

둔 사역에 힘쓰는 교회이다. 셋째, 평신도를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이다. 넷째,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이다. 여섯째, 주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교회이다. 일곱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이다.

다. 제자훈련의 필요성

제자훈련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며 교회에게 유언으로 명하신 사역(마 28:19-20)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102] 그리고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밝힌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데이빗 왓슨은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밝히고 있다.[103] 첫째,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 도덕적 결핍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동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함을 성경적으로 조명해주며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교회 전통으로 복음 전파 능력이 교회에서 경시되어 있고 교회에 위임된 전도 사역이 부흥사나 기타 몇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목회의 한 방법이나 기술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자훈련은 목회 최고의 전략이며 핵심인 동시에 교회사역 그 자체이다. 그것은 제자훈련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최상태 목사는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같다.[104]

첫째,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며 유언으로 명하신 사역이기 때문이다.

---

101)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4.
10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9-20).
103)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82-86.
10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77-180.

둘째,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골 1:28). 월터 헤릭슨(Walter A. Henrichsen)은 그의 책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105]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훈련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셋째,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일만 맡기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사역을 평신도에게 분담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구분하여 머리 속에 두지 않았다.[106]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삼고 사역의 장을 열어주어서 목회 사역을 함께 분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섯째, 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영적 재생산이나 각처로 복음 전파할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나 복음을 계승할 사람들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여섯째,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른 태도와 동기 가지고 사역하도록 돕는 훈련이다. 그 결과로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견고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

라. 제자훈련의 시작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 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은 예수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무엇보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은 지도하는 교역자나 훈련을 받는 평신도가 다같이 예수화되는 과정에 동참하는 일종의 영적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107]

제자훈련반은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 성경공부 그룹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인원(12명 이하)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겠다는 욕심으로 많은 인원을 한꺼

105)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선교회, 1998), 30-41.
106)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 IVP, 1995), 12-16.
10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92.

번에 선발해서 제자훈련을 하다가는 아무런 열매 없이 중도에 그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또한 훈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훈련 후에 소그룹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훈련생을 선출할 수 있는 목회자의 눈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생이 모두 선출이 되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훈련의 시작을 축하할 수 있는 입학식을 하게 된다. 입학식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제자훈련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생 자신도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훈련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 제자훈련의 과정

제자를 만드는 일은 소수에게 교역자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는 봉사가 보장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원리이다.[108]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 중에서 제자훈련이 중요한 사역임을 인식하고, 제자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야한다. 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자훈련반은 중요하다. 첫 제자훈련반이 어떤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제자훈련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32주 과정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교재로 진행된다. 제자훈련의 성경공부 교재는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 경력이 길던 짧던 상관 없이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말씀의 적용이 강조된 것이라야 한다. 훈련 속에서 배운 말씀을 훈련생의 삶 속에 적용할 때 훈련생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납적인 접근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귀납식 교재는 성경 말씀 앞에서 귀납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훈련생이 직접 답을 찾으면서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삶에 대한 적용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훈련반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회자도 자신

10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15.

의 삶을 진실하게 나눔으로써 훈련생들이 그 나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들은 그들의 삶을 가식과 겉모양 뒤에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솔직히 나눔으로써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 내에서 좀 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열린 통로를 만들어 둔다.[109] 이 열린 통로가 바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통로가 되고, 적용한 것을 다시 나누기 위한 통로가 된다. 제자훈련반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먼저 용기 있게 자신을 개방해서 나눌 때 다른 훈련생들도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훈련생들도 나중에 자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에서 자신을 먼저 개방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바. 제자훈련 과정 이후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 계속 훈련을 받거나 다른 사역에 열중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받기 전보다 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방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자는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졸업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축하를 한다. 순서 중에는 졸업생 대표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훈련 속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친 훈련생 중에서 소그룹 리더로 세울만한 사람들을 다시 선별해서 사역훈련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화평교회에서는 지도자반이라고 한다. 이 때에도 역시 소그룹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24주 동안 진행되는 사역훈련에서는 실제로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과 리더로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섬길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이 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철학과 목회사역의 방향을 훈련생들과 나누게 된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사역훈련이 끝난 후에 소그룹 리더로서 세워질 때 분명한 목회의 방향을 알고 목회자

109)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64.

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화평교회에서는 제자훈련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지도자반 과정에서 계속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거나 받은 은사대로 각 교육기관이나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전도폭발이나 부부성장반에 들어가 계속 교육받기도 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한하여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교회 성도들은 사람세우는 제자훈련반이나 지도자반 과정을 마치고,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입어 쓰임 받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110]

사. 제자훈련 사역의 열매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란,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는 일이고, 주님의 방식대로 제자훈련의 길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다. 최상태 목사는 화평교회의 제자훈련의 열매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11]

첫째,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되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목회자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탄생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

둘째, 바른 교회관이 세워졌다. 화평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뚜렷이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사역, 곧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

셋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최상태 목사는 화평교회 성도들로부터 "교회생활이 정말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자주 들을 정도로 성도들의 관계가 초대교회와 같은 강한 형제의식으로 묶여 있음을 발견한다.

넷째, 가정교회가 탄생하였다. 제자훈련을 잘 받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에 따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

110)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84.
111) 최상태,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79-83.

다섯째,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타났다.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었다.

제 3 절 요약과 정리

교회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소그룹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현재 교회의 소그룹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계속 찾아가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정교회와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제자훈련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를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목회적 중심 과제로 삼으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목회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에 적용하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목회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북문교회의 상황과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동체적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4 장
북문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고찰

지금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의 이해와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에 대하여 고찰했다. 본 장에서는 북문교회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역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문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자가 부임한 후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실행했던 사역의 과정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활성화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지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역사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의 시작과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절에서는 북문교회의 설립 배경과 교회 초기 사역을 통하여 목회의 기반이 조성된 후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부임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교회와 목회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북문교회의 설립과 기반 조성

한국사회가 6.25 전쟁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던 1952년 2월 11일, 청주시 북문로 2가 101번지의 일본식 건물의 다다미 방 한 칸에서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

이진옥 전도사가 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 개척예배를 드리는 찬송이었다. 초대 교역자인 이진옥 전도사는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에서 1918년에 태어나서 유년 시절, 묵방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17세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그곳에서 중등과정을 마친 후, 나고야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 징용에 끌려갔다가 1944년에 귀국하여 전남 나주에 정착하였다. 1950년 전남 나주읍교회에서 33세에 장로 안수를 받고 약 2년간 시무하였다. 그 후 1952년, 그는 뜻한 바가 있어 청주에 내려와 전도인으로서 청주제일교회의 후원을 받아 본 교회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었고 1953년에는 청주성경학교 특별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전도사로서 활약하였다.[112]

그 후 기원형 목사(1956. 4 ~ 1958. 6)를 비롯해서 박재봉 목사(1959. 12 ~ 1963. 2), 엄기현 목사(1963. 11 ~ 1965. 9), 이성범 목사(1966. 2 ~ 1970. 8) 등이 거쳐가면서 교회는 서서히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2. 교회의 성장과 발전

1970년 9월 권헌중 목사가 34세의 나이로 부임했을 때의 성도는 장년이 30여명, 학생 10여명, 어린이 30여명 정도의 약한 교회였다. 권헌중 목사는 교회에 부임함과 동시에 젊은 패기와 노력으로 전도와 심방에 열심을 내었고,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목회를 통해서 부임 3년만에 100명의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권헌중 목사는 청년대학생들이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청년 복음화에 열정을 쏟았다. 그로 인해 본 교회는 청주 시내에서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젊은 교회로 주목받게 되었다.[113]

본 교회는 이 후 급성장하여 기존 예배당이 좁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982년에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게 되었다. 건축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권헌중 목사의 영적인 리더십과 교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부흥의 발돋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114]

이후 교회는 청주 YMCA와 YWCA의 지도자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지역선교에

112) 역사편찬부, *북문교회 50년사* (청주: 북문교회 역사편찬부, 2002년), 79-80.
113) Ibid., 117-118.
114) Ibid., 261-262.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중국, 필리핀, 캐냐, 남인도 등)에 교회를 개척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본 교회 출신 선교사를 직접 해외에 파송하기도 했다.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는 교회 전체 예산의 56퍼센트를 해외선교에 사용한 적도 있었다.[115]

권헌중 목사는 30년 넘게 북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교회의 중요한 목회 방향을 선교중심의 교회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3.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북문교회가 있는 청주는 일찍이 '청풍명월의 고장',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 '교육의 도시'로 불리워져 왔다. 교육과 문화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훌륭하였으며, 선비 정신과 올곧은 심성으로 곧은 의기를 굽히지 않는 충절의 고장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청주는 현재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은 물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지방 중심지로 성장하여 영,호남지방과는 크게 구별되는 중원 문화권 형성에 축을 이루어 온 유서 깊은 지방이다.[116]

청주시는 2014년에 주변의 청원군과 통합하여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고 그 인구는 84만명에 이른다.[117] 본 교회가 있는 북문로 1,2,3가 지역은 청주시청사가 위치하는 청주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주거지역은 시내 공동화 현상으로 시 외곽지역의 주택단지로 중심주거지역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 교회 주변은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되었고, 인구도 청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4. 본 연구자의 부임 배경과 현재의 상황

본 연구자는 2011년 12월 북문교회에 부임했다. 부임했을 때는 직전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6개월 정도 담임목회자 없이 지났을 때이다. 그리고 직전 목회자의 목회적

115) 역사편찬부, *북문교회 50년사*, 294-299
116) Ibid., 65-66.
117) 통합 청주시 길라잡이, http://www.cheongju.go.kr

인 불협화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있었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고 있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부임한 후에 설교단상에서는 사랑과 소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였고 훈련목회를 통해 교인들을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래서 북문가족성경공부와 큐티학교, 제자훈련과 같은 양육과정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본 연구자가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부터 교인들이 함께 선교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왔었는데, 부임하고 보니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와 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부임 후 1년 후에 건축계획을 시작해서 이듬해 완공을 해서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과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인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 기도사역을 계획하고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팀 을 세워가고 있다. 중보기도팀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 기도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 속에 식어진 구령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교회의 사명인 영혼구원의 사명에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새생명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래서 새생명축제를 교인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기쁘고 의미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한달에 한번씩 거행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이 비교적 잘 세워지고 있는데 비하여 기존의 구역모임은 아직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가정마다 경제적인 여유들이 없어지면서 집에서 가사 일을 했던 여자 교인들이 점점 직장을 구하고 경제활동에 동참해 가는 모습도 구역모임이 어려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로한 교인들이 모이는 구역은 비교적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과 교제와 나눔이 잘 되고 있지만 젊은 교인들이 모이는 구역은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교제와 나눔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 2 절 교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역의 실제

북문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시작한 사역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역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사역들을 하나씩 시작하고 세워나갔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연결성이 있는 사역의 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함께 신앙적인 교제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소그룹을 이해하고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했던 목회 초기의 사역들이었다. 이러한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면서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북문가족 성경공부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문가족 성경공부는 4주 동안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루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기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부임 초기에 목회자와 성도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북문교회 교인으로서 갖게 되는 자긍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된다.

가. 과정

첫 번째 주에는 서로 인사를 하면서 북문가족 성경공부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눈다. 그리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 과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공부로 들어간다.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1과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한 주 동안의 해 올 과제로 '매일 요한복음 1장씩 읽기'와

'하루에 한번 씩 기도하기'가 있다.

두 번째 주에는 지난 주의 과제와 삶에 대하여 서로 나누고, 성경공부로 들어간다. 2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참 믿음은 어떤 것이고,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함께 하고, 과정에 참석한 사람들을 눈을 감게 하고, 인도자가 조용하게 인도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자의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한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하하고 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해 올 과제로 자신의 간증문을 써오게 한다.

세 번째 주에는 지난 주에 대한 과제와 삶을 함께 나눈 후에 성경공부로 들어가서 3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한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매일 주님과 만날 약속(경건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고, 한 주 동안 과제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한다.

네 번째 주에는 지난 주에 대한 과제와 삶을 나눈 후에 성경공부로 들어가서 4과 '성경과 교회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다. 성경의 저자와 신구약 성경의 주제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살펴본다.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 과정의 수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의 참석을 권유하면서 4주 간의 과정을 마친다.

나. 만남의 시간(수료식)

북문가족 성경공부의 4주 간의 과정이 끝나면 한 주 지나서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모여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순서는 레크레이션과 찬양, 기도, 말씀, 나눔의 시간(수료생), 사역 후기(인도자), 수료식, 격려사, 애찬의 시간, 찬양, 축도로 이어진다. 나눔의 시간은 북문가족 성경공부에 참여했던 수료생들 전체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리고 애찬의 시간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 잔을 미리 준비해

서 수료생과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둘씩 짝을 지어서 앞으로 나와서 서로 떡을 포도주 잔에 찍어서 서로 먹여주고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한 후에 목회자가 준비된 십자가 목걸이를 수료생 목에 걸어주고 수료증을 전달한다. 그리고 모든 순서 후에 준비된 다과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수료생들이 다음 날 주일예배 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오게 하고 예배 중에 모든 교인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축하하는 시간은 수료생 중의 한 명이 간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전체 수료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 1〉은 북문가족 성경공부의 기수별 인원이다. 처음 1기부터는 기존의 교인들이 참여를 했기 인원이 많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7기부터는 새가족 중심으로 참여하게 된다.

〈표 1〉 북문교회 북문가족 성경공부 기수별 인원 현황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인원(명)	25	22	23	15	7	15	6	2	2

2. QT 학교

QT 학교는 북문가족 성경공부에 이어서 2단계 양육과정 중의 하나이다. 3단계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QT 학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다. 기도와 말씀 훈련과 같은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이 바로 QT(Quiet Time, 경건의 시간)인데, 그것을 혼자서 매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경건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QT 학교이다.[118]

QT 학교는 4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북문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한 교인들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다.

118) 유진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울: 두란노, 2009), 64-65.

가. 과정

첫 번째 주에는 QT 학교에 참여한 동기에 대하여 서로 나눔을 갖고, QT 학교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성경묵상의 동기' 라는 제목으로 성경묵상의 의미와 성경묵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두 번째 주에는 '성경묵상의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묵상의 순서와 성경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과 내게 주시는 교훈 찾는 것을 살펴본다.

세 번째 주에는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사실을 적용하는 것과 내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로 QT를 직접 함께 해보고 나누어보면서 QT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간다.

네 번째 주에는 성경묵상에 대한 실습을 함께 하면서 혼자서도 QT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한다. 그리고 QT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QT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확인한다.

나. 수료식

QT 학교 수료식은 주일예배 중에 하는데, QT 학교 참석자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여 간증을 하게 한다. 그리고 수료증과 선물(QT 교재)을 전달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순서를 갖는다.

QT 학교는 3기까지 진행했고 총 23명이 수료했다.

3. 제자훈련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려면 소그룹을 이끌고 갈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방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던 소그룹이 이제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소그룹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성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목회 리더십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수평적이고 함께 섬기는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평신도가 교역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병적 체질을 교역자가 평신도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119] 사랑의 교회의 초석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킨 옥한흠 목사가 평신도를 목회자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실시했던 제자훈련의 방식을 많은 교회들이 함께 실행하고,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자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더욱 더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바뀌게 된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북문교회에 부임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제자훈련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가.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는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설교 강단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수용성 없이는 제자훈련을 실시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를 초청해서 간증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검증된 제자훈련의 열매를 성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 제자훈련의 시작

부임하고 먼저 제자훈련에 대하여 당회에 설명을 하고 장로반부터 훈련계획을 세웠다. 제자훈련을 장로반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목회 일선에서 목회자와 장로는 두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중요한 동역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6.

장로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회의 비전과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었고,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초석을 놓았다.

장로반 제자훈련이 소문이 나자 제자훈련에 대한 관심들이 교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문가족 성경공부와 QT 학교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중요성을 전하면서 평신도 1기 제자훈련을 위하여 준비했다.

먼저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2단계 양육과정인 QT 학교까지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했고, 나이도 50대 중반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훈련 이후에 평신도 리더로서 사역할 모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인원은 12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으로 제한하신 의미도 있고, 실제로 소그룹 환경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계가 12명이기 때문이다.[120]

제자훈련생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원하는 교인이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지만 목회자가 보았을 때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권면해서 훈련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권면해서 준비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제자훈련 신청서를 받고, 제자훈련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제자훈련생을 선발한 후에도 다시 개인 상담을 통해서 훈련을 향한 태도와 리더에 대한 가능성의 부분을 점검했다.

제자훈련생이 모두 선출이 되면, 주일 예배 중에 입학식을 하면서 훈련의 시작을 전교인이 함께 축하한다. 훈련생들에게 훈련용품(교재, 볼펜, 암송카드, 손수건)을 전달하고 교인들이 함께 제자훈련생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모든 교인이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제자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훈련생 자신도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입학식 후에 훈련생들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인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

120)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16.

통해서 같은 제자반에서 32주 동안 함께 해야 할 훈련생이라는 사실을 공감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훈련생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다. 제자훈련의 과정

제자훈련은 평일 저녁에 교회 소그룹실에 모여서 2-3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교회에서 주로 모이게 되지만 제자훈련 중반기에 훈련생 가정에서 한번씩 모이는 것도 좋다. 가정에서 모이게 될 때에는 간단한 식사를 모이는 훈련생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씩이라도 훈련생 가정에서 모이게 될 때 그 가정의 형편을 함께 이해하면서 신앙의 인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된다.[121]

훈련 모임은 먼저 훈련생들 자신이 준비해 온 지난 주 과제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한 후에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는 인도자가 훈련생 중 몇 사람을 선택해서 삶을 나누게 할 수도 있고, 훈련생의 인원수가 6명 이하이면 다함께 삶을 나누어도 좋다. 삶을 나눈 후에 훈련 교재(국제제자훈련원 출판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귀납적인 접근방법의 성경공부를 인도자를 따라서 하게 된다. 이 때 인도자는 훈련생의 신앙 정도와 이해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각 훈련생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질문을 한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적절한 질문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질문을 잘 던질 줄 아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떠한 질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자훈련의 분위기와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반을 인도하는 목회자는 모든 훈련생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각자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질문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122] 그리고 인도자는 너무 한 사람에게 대화가 집중되지 않도록 훈련생 전체를 생각하고 시간을 고려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들에게 일주일마다 내주는 과제물은 제자훈련을 말 그대로 훈련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매번 제자훈련할 때마다 과제물 때문

12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271.
12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56-257.

에 힘들다고 말하는 훈련생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물은 훈련생들의 삶을 훈련으로 이끄는 훈련 조교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성경읽기와 기도, 그리고 교제 예습과 큐티와 매주일 예배의 설교 요약과 성경구절 암송, 훈련생끼리 전화교제와 자신의 주간 스케줄표를 작성하고 점검하기, 그리고 독서보고와 생활 숙제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의 과제물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양의 훈련과제일 수 있지만 과제물을 하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제자훈련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그 훈련생이 제자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과제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과제물을 힘겨워하면서 잘 하지 못하는 훈련생들은 인도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제물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고 대충 훈련을 받거나 중도에 그만 두는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자는 과제물을 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훈련생들을 계속 격려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훈련생들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과제물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훈련반의 교제를 위해서 훈련 중에 생일자를 축하하고, 1-2회 정도 제자훈련반의 단합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달 정도 독서방학을 갖고 모든 과정이 끝나갈 쯤에 제자반 졸업여행을 1박2일로 다녀온다. 다음의〈표 2〉는 제자훈련의 전체 커리큘럼 속에서 훈련하게 되는 내용들과 전체 훈련의 흐름을 알려준다.

〈표 2〉 북문교회 2기(2014년) 제자훈련반 커리큘럼

주	날 짜	내 용 (진 도)	비 고
1	4/ 3	제1권 1과 : 나의 신앙고백과 간증	
2	4/10	제1권 2과 :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	4/17	제1권 3과 : 경건의 시간	
4	4/24	제1권 4과 :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5	5/ 1	제1권 5과 :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6	5/ 8	제1권 6과 : 기도의 응답	총복습과제 부과
7	5/15	제2권 1과 : 성경의 권위	
8	5/22	제2권 2과 : 하나님은 누구신가?	

9	5/29	제2권 3과 :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자반 단합모임 (5.31)			
10	6/ 5	제2권 4과 : 삼위 일체 하나님	
11	6/12	제2권 5과 :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12	6/19	제2권 6과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13	6/26	제2권 7과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4	7/ 3	제2권 8과 : 약속대로 오신 성령	
15	7/10	제2권 9과 : 거듭난 사람	
16	7/17	제2권 10과 : 믿음이란 무엇인가?	
17	7/24	제2권 11과 :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독서 방학 (7.31 - 8.21)			
18	8/28	제2권 12과 :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19	9/ 4	제2권 13과 : 그리스도인의 성화	
20	9/11	제2권 14과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총복습과제 부과
21	9/18	제3권 1과 : 순종의 생활	
22	9/25	제3권 2과 : 봉사의 의무	
독서방학 (10.2 - 10.9)			
23	10/16	제3권 3과 :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24	10/23	제3권 4과 :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25	10/30	제3권 5과 : 영적 성장과 성숙	
26	11/ 6	제3권 6과 : 순결한 생활	
27	11/13	제3권 7과 :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28	11/20	제3권 8과 : 신앙 인격의 연단	
29	11/27	제3권 9과 : 그리스도의 주재권	
30	12/ 4	제3권 10과 : 청지기 직	
31	12/11	제3권 11과 : 영적 전투	
32	12/18	제3권 12과 : 새 계명 - 사랑하라	졸업 과제
제자훈련 졸업 수련회 (12월 중, 1박 2일)			

라. 제자훈련 과정 이후

제자훈련을 다 마치면 주일예배 때 수료식을 한다. 제자훈련생 중의 한명이 훈련의 소감을 전하는 간증을 하면서 제자훈련 중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훈련을 인도했던 목회자가 훈련과정을 설명하고, 수료증을 수료생들에게 전달한 후에 훈련생 전체의 찬양과 전교인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수료식을 마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친 수료생 중에서 소그룹 리더로 세울만한 사람들을 다시 선별해서 리더훈련을 진행한다. 16주 동안 진행되는 리더훈련은 제자훈련과 같이 12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교재(사

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교제의 내용은 소그룹 인도를 위한 준비와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과 소그룹 모임 속에서 격려하고 잘 나누는 방법, 열린 질문하기, 경청하는 방법, 성장을 위한 소그룹 인도 등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된다.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구역)에 대한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목회자의 소그룹을 향한 비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게 된다. 그리고 리더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은 교회의 소그룹(구역)의 리더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의 〈표 3〉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이 리더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북문교회 제자훈련 현황

기수	기 간	훈련생	리더훈련 참여
장로반	2012. 3 - 12	5명(장로반)	
1기	2013. 3 - 12	5명(남자반)	5명
2기	2014. 3 - 12	6명(여자반)	5명
3기	2015. 3 - 12	4명(남자반)	
계		20명	10명

4. 중보기도학교

교회의 영성의 중요한 축이 기도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이다. 본 연구자가 북문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자훈련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중보기도 사역이다. 목회의 중심인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은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기도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이 된다.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9주동안의 중보기도학교와 이어지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목회의 영성의 부분이 더 깊어지고 사역의 열매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중보기도학교의 과정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훈련생 모집을 알리고 참가신청을 하게 했다. 중보기도학교의 참가 자격은 북문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9주 동안 이어지는 과정 속에 훈련모임은 매주 찬양과 중보기도학교 교재의 강의와 중보기도 시간으로 마친다. 교재 내용은 제1강 기도와 중보기도, 제2강 중보기도사역의 중요성, 제3강 중보기도사역의 의무. 제4강 중보기도사역의 환자기도, 제5강 중보기도사역의 권세와 승리, 제6강 중보기도사역의 경호기도, 제7강 중보기도사역의 영적 전쟁, 제8강 중보기도사역의 비전과 전략 등이다.

마지막 9주 모임에서는 서로의 훈련 소감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중보기도사역 헌신에 대한 서약서를 쓰고, 이어지는 주일예배 때의 수료식에서 전 교인 앞에서 중보기도사역을 위한 선서를 하고 중보기도사역을 시작한다.

나.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사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 사역이다. 9주간의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다. 중보기도사역의 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10개월 이후에 다시 재헌신할 수 있다.

중보기도 사역은 첫 번째로 중보기도실의 기도 사역이 있다. 교회 중보기도실에 정해진 시간(일주일 1회, 1시간)에 나와서 성도들이 낸 기도제목을 보면서 기도한다. 성도들이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낸 기도카드는 두 가지가 있다. 기도요청카드(흰색)와 기도응답카드(파랑색)이다. 기도요청카드는 성도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기도인지 긴급기도인지를 기록하고, 기도제목과 이름을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게 된다. 그리고 기도응답카드는 기도요청카드를 낸 성도 중에 그 기도제목이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간단히 기록해서 중보기도함에 넣게 된다.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실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기도 시간을 지켜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중보기도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화요 어머니 기도회 사역이 있다. 화요일 오전에 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팀에 속하지 않은 교인들, 특히 어머니들은 이 때 함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가 더 활력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래의 〈표 4〉는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받은 교인들이 이어서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성들과 나이 든 성도들의 중점 사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표 4〉중보기도학교와 중보기도 사역의 현황

기수	기 간	훈련생	중보기도 사역 참여
1기	2012. 10. 9 - 12. 4	15명	14명
2기	2013. 10. 1 - 11. 26	5명	5명
3기	2015. 2. 3 - 4. 12	5명	5명

5. 새생명축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마 28:18-20). 새생명축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본분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집회이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해 왔던 단순히 전도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 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전도'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도 평소에 전도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었지만 선뜻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 새생명축제의 준비

새생명축제는 적어도 5-6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기획으로부터 사작해서 집회 자체에 대한 세밀한 준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태신자(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만나고, 초청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먼저 새생명축제의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는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좋다. 북문교회에서 2014년에 했던 새생명축제의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었다. 주일예배 때마다 주제를 구호로 외치면서 전 교인이 새생명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일예배 설교도 새생명축제 3-4개월 전부터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에 연결시켜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생명축제를 위한 분위기로 고조시켜 나갔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교인들이 태신자 작정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한다.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회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과 열정과 재능이 있는 성도들을 함께 팀으로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게 했다. 팀원들이 자주 만나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행사를 기획하면서 자연스럽개 교제가 되면서 잘 몰랐던 교인들이 함께 친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구역에서도 모일 때마다 함께 새생명축제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전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나. 새생명축제의 진행

북문교회 2014년 새생명축제는 10월 18일(토) 저녁과 19일(주일) 아침에 걸쳐서 두 번을 진행했다. 먼저 초청되어 교회에 온 태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의 환영의 인사를 받으며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화분을 선물로 전해준다. 선물임과 동시에 교인들이 화분을 들어있는 사람이 새로 온 태신자임을 알게 하는 것도 있다. 예배실 안에 들어올 때 태신자 지정석에 인도자와 함께 앉게 한다. 그리고 태신자의 참석카드는 미리 인도자가 써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하게 한다.

집회 시간이 되면 찬양팀이 나와서 10-15분 동안 태신자들을 환영하는 내용의 경쾌한 찬양으로 집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찬양을 함께 하고, 이어서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한다. 그리고 간증자가 나와서 15-2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이 때 간증자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의 간증자를 섭외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태신자를 환영하는 영상(2-3분)을 통해서 낯선 장소에 앉아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풀어준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목사의 설교(25-30분)를 통해서 태신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 그리고 설교 후에 결신의 시간이 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도자(담임목사)는 함께 찬양('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한 후에 결신의 초청을 한다. 이 때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인도자가 가지고 있던 결신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가 태신자가 일어나서 영접을 하면 옆에 있는 인도자가 결신카드를 안내위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다함께 찬양하고 담임목사의 축도로 집회를 마친 후에 다함께 다과회를 하면서 태신자들과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정성스런 식사를 준비해서 토요일에는 집회 전에, 주일에는 집회 후에 태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 새생명축제 이후

새생명축제가 끝난 후에 후속양육부는 집회에 참석한 태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때 집회 중에 결신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것은 결신한 태신자가 다시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태신자들에게 다음 주일 다시 한 번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태신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다시 올 태신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신자들이 나와서 교회 등록을 하면 북문가족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한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에 2014년에 새생명축제를 처음 진행했는데, 태신자 작정을 156명 했고, 새생명축제에 참여한 태신자는 30명이었다. 참석한 태신자의 수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교인들은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 태신자를 환영했고, 태

신자들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준비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게 되었고, 제자훈련을 수료한 교인들도 교회 사역으로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본 연구자가 부임해서 보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다. 각 교육부서의 예배 공간과 교육활동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과 담당 교역자의 부재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교인들에게 교육관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관 건축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부임 후 이듬해 가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해 봄부터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여 가을에 완공을 하게 되었다.

교육관을 완공하고 나서 각 교육부의 예배가 다시 잘 세워지게 되었고,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침체되어있던 각 교육부서들이 활기있게 모임을 갖게 되면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밝게 변화되었다. 특히 어린이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유치부가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와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일예배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젊은 교인들도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부가 교육관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카페를 하면서 교인들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육관을 통해 교인들 전체의 신앙활동과 모임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과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여서 선교단체들과 봉사단체들이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층에 있는 소예배실과 카페는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예배실과 교육활동실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모든 교인들의 교제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신앙 영화를 보는 문화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소예배실은 유치부가 주로 사용하면서 교회 다른 부서들의 신앙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소그룹실은 말씀 양육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표 5〉교육관 현황

1층	소예배실1, 카페, 화장실, 샤워실
2층	소예배실2, 소그룹실1-3, 화장실, 야외 휴게실
3층	게스트 룸

제 3 절 사역의 평가

본 연구자가 목회한 다소 짧은 3년 정도의 사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점검하면서 공동체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회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평가라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소그룹의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본 연구자의 목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과 설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바라본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본 교회의 훈련과 양육에 대한 사역은 교인들이 단계별로 순차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설문에서 제자훈련에 참여한 응답자(14명) 중 62퍼센트(8명)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38퍼센트(5명)가 그렇다고 했다. 제자훈련 경험자들은 제자훈련이 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밑거름이 되는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도 29퍼센트(4명)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50퍼센트(7명)가 그렇다고 했고, 14퍼센트(2명)가 조금 그렇다고, 7퍼센트(1명)가 아니라고 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3퍼센트였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제자훈련을 마치고 소그룹 리더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도 93퍼센트(13명)가 사역하겠다고 했고, 7퍼센트(1명)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사역하겠

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자훈련이 건강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은 가정교회를 생각할 때 건강한 소그룹을 인도하는 건강한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면서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그룹(구역)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14퍼센트(2명)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57퍼센트(8명)가 그렇다고 했고, 21퍼센트(3명)가 조금 그렇다고 했고, 7퍼센트(1명)가 아니다고 했다. 그래서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교인이 지금 소그룹(구역)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까지의 교회 안의 전통적인 소그룹이 새롭게 가정교회의 건강한 소그룹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구역)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에 대한 설문에서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소그룹 리더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들도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교제와 깊은 나눔의 건강한 모습이 전통적인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렇게 소그룹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소그룹(구역)을 살펴볼 때 많은 소그룹의 리더들(구역장)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리더들 자신도 더 이상 전통적인 소그룹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소그룹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젊은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서 직장일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평일 오전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에 모이거나 주말에 모여야 하지만 그 시간까지 사역으로 헌신할 만큼 리더들의 열정이 미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역의 열정이 식어있는 리더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건강한 리더로 다시 세울 것에 대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소그룹의 그룹원(구역원)들 역시 소그룹 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낮았다. 그리고 잘 모이는 소그룹은 전체의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현재의 소그룹(구역)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그룹 변

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성 중심의 소그룹의 모습을 탈피하고 남성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소그룹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남자 리더들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회를 생각할 때 부부 리더가 함께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세워나가는 모습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이끄는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재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훈련은 제자훈련과 중보기도학교이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훈련 계획들이 세워지면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을 훈련을 통하여 사역 현장에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북문교회는 60대 이상 성도가 전체 성도의 절반 정도이다. 물론 젊은 성도들에게 맞는 양육과 훈련 과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60대 이상 성도들 중에서 성숙한 신앙과 풍성한 삶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제자훈련의 과정을 조금 축소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60대 이상의 성도들도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60대 이상의 실버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를 세워감으로 노년층의 성도들도 건강한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교육목회에 중점을 두면서 주일학교 부서들을 잘 세우기 위한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비해서 북문교회가 오래 전부터 사역을 잘 해왔던 선교 사역은 아직 미진하다. 교회 안에서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정책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비전이 다시 정립되어서 더욱 활기차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소그룹처럼 더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쏟는 모습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의 소그룹(목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 안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해나갈 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자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제 4 절 요약과 정리

한 교회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역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더욱 더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과 훈련에 참여시키고 소그룹 리더를 계속 세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만큼 아직 하고 있는 사역들과 그 열매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회의 분명한 목표와 사역의 방향이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계속되는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가 배출이 되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그룹의 모델을 가정교회로 삼고, 가정교회로 가기 위하여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목회의 목표와 사역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될 때 북문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정교회의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접근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실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한다.

제 5 장
북문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의 이해와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 그리고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북문교회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역에 대하여 고찰했다. 본 장에서는 북문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적인 모델로 살펴본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가정교회를 이제 본 교회에 적용해서 세우기 위한 준비와 시작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북문교회의 전통적인 소그룹을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의 성격을 띤 소그룹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하여 현재의 제자훈련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소그룹을 돕는 사역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가정교회를 통한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은 소그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건강한 소그룹의 모델인 가정교회를 북문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북문교회의 미래의 교회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통한 소그룹을 세워나갈 때 전통적인 소그룹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교회일수록 더욱 신중하면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소그룹의 전환을 진행해야 성도들로부터 그동안의 소그룹과는 다른 가정교회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게 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위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준비기(2015년 ~ 2017년)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왜 건강한 소그룹인가?' 를 성도들에게 잘 알리고, 성도들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그 기초를 둔 가정교회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설교

교회 공동체 전체 회중이 함께 모일 때가 주일예배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정교회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일회성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가정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었을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기간에 가정교회에 대한 설교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설교 계획을 세울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씩 설교를 하거나 연속 설교로 각 2~3회씩 1년 동안에 4회를 하거나 2년 동안에 8회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 아래와 같은 성경본문과 제목으로 1년~2년 동안의 가정교회를 위한 설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표 6〉가정교회 준비를 위한 예배 설교 계획

	성경본문	설교 제목
1	누가복음 5:36-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2	요한복음 13:12-16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3	마태복음 28:19-20	"선교를 지향하는 제자공동체"
4	사도행전 2:43-47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5	사도행전 5:41-42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
6	로마서 16:3-5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정교회"

7	로마서 16:1-2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삶"
8	빌레몬서 8-18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동체"
9	빌립보서 2:1-4	"성령 안에서의 교제"
10	베드로전서 4:10-11	"은사로 사역하며 세워지는 공동체"
11	갈라디아서 5:22-24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12	에베소서 2:19-22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나.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

설교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 가정교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앞에서 가정교회의 실제의 예로 밝힌 화평교회(경기도 일산 소재)의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먼저 목회자부터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에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을 세미나에 참석하게 한다. 보통 3박 4일로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에서 목회자는 전체 일정에 참여해야 하고, 평신도는 마지막 하루를 참여할 수 있다.

주로 강의로 가정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가정교회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가정교회 사역간증' 등 가정교회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화평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 목회철학을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경험하게 된다.[123] 마지막 날은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가정교회의 각 목장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목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그룹토의를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나눔으로써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가정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가정교회 세미나를 성도들이 참석하고 오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북문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

123) 가정교회 자료실, '화평교회 소그룹 목회 반응 크다', Online:http//www.hwapyung21.org

다. 소그룹 리더 모임

가정교회 준비를 위해서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구역장, 구역강사)과 함께 소그룹의 중요성과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리더들이 가정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될 때 소그룹원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한달에 한번)에서 가정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가정교회 목자가 간증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토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상반기, 하반기) 전체 소그룹 리더 수련회에서 설교와 교제와 기도회를 통하여 앞으로 교회가 세워가야 할 소그룹의 긍정적인 모습과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간다.

〈표 7〉 소그룹 리더 수련회 프로그램

시 간	제 목	내 용
오전 10:00 - 11:00	예배 / 말씀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11:00 - 12:00	소그룹 토의 / 발표	* 소그룹에서 경험한 은혜 나누기 * 새로운 소그룹에 대한 소망 나누기
오후 12:00 - 1:00	식사 교제	사랑의 교제
1:00 - 2:00	공동체 훈련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
2:00 - 2:30	가정교회 영상	가정교회 소그룹 리더의 간증 영상
2:30 - 3:30	강 의	'가정교회와 소그룹 목회'
3:30 - 4:30	소그룹 토의 / 나눔	'가정교회와 건강한 소그룹'
4:30 - 5:00	기 도 회 / 마침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라. 남성 소그룹 세우기

전통적인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은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그룹(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소외되어 있는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소그룹으로 인도하여 '소그룹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 남녀 전체 성도가 참여하는 건강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남성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은 5명의 남자 성도들과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4명의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남성 소그룹을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남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과 달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구역모임과 같이 처음부터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할만한 열정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소그룹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동기 부여와 함께 남자 성도들이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취미 소그룹이다.

직장일로 거의 일주일 내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 성도들이 주말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 모이게 될 때 모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취미로 하는 그룹(축구, 마라톤, 자전거, 테니스, 볼링 등)과 여행을 취미로 하는 그룹(등산, 캠핑, 둘레길 걷기, 문화유산 답사 등)으로 해서 남자 성도들 자신이 원하는 취미 그룹으로 들어가서 함께 모임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남성 소그룹이 시작이 되면 좋을 것이다.

남성 취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는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은 성도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취미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도 가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소그룹을 세워갈 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모임에 대한 원칙을 세울 때 모임의 횟수는 매주 한번씩 모이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힘들어질 때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은 모일 수 있도록 한다. 모임 시간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서 모이도록 한다. 모일 때는 반드시 모임 앞쪽

이나 뒤쪽에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제를 한다. 남성 취미 소그룹이지만 모일 때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습도 가정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미리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취미 소그룹마다 밖에서 모일 수 있지만 한달에 한번씩 가정에 모여서 식사 교제와 함께 개인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한다. 그리고 취미 소그룹의 운영을 위해서 적당한 회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취미 소그룹으로 남자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교회활동과 사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남자 성도들이 취미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활동과 사역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삼는 기회도 될 것이다.

마. 부부 소그룹 세우기

가정교회의 목장에는 부부가 함께 소그룹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모인다. 왜냐하면 목장은 가정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듯이 가정교회의 목장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 이렇게 목장에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은 모임의 중점이 삶의 나눔에 있기 때문이다. 부부들이 함께 목장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다보면 남자들은 직장에서도 하지 못한 이야기와 가족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일도 있다.[124]

그래서 가정교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소그룹 중에서 먼저 부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찾아서 부부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적어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리더훈련까지 마친 부부에 한해서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부가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리더훈련까지 마친 성도들이 아직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부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한 두 개의 소그룹이라도 먼저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4)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95-96.

리더훈련까지 수료한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성 소그룹을 인도할지 아니면 부부 소그룹을 인도할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부부 소그룹을 인도하길 원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소그룹(구역)을 기초로 해서 모일 수 있고, 리더 부부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모여서 부부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 3가정 이상 모이는 것으로 하고 6가정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한다.

모임 시간은 남성 취미 소그룹과 같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모일 수 있고, 리더의 가정에서 모인다. 매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한다. 모일 때 먼저 식사를 함께 하는데, 각 가정마다 반찬 한 가지씩을 준비해 오도록 한다. 이것은 리더 부부의 부담도 줄일 뿐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는 소그룹으로서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식사 후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룹원 중에서 게임 담당하는 사람을 뽑거나 돌아가면서 해도 좋다. 그리고 찬양 인도도 리더가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소그룹원 중에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악보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말씀 나눔은 리더의 인도로 주일예배 설교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을 나눈다. 삶을 나눌 때 자신의 삶의 문제를 꺼내놓고 거기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이어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할 때 부부 소그룹 모임 시간은 2~3시간으로 하면 된다.

바. 실버 소그룹 세우기

북문교회는 성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연령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은 성도들이 신앙의 활동을 젊은이들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이는 열정만큼은 어느 연령대의 성도들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교회 소그룹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그룹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층의 성도들이 삶을 깊이 나누는 모임으로 소그룹을 할 때 2시

간 혹은 3시간 동안 모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연령층이 높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실버 소그룹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60대 이상의 여자 성도들은 일반 소그룹(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남자 성도들은 아직 소그룹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서 실버 소그룹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버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를 세우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실버 제자훈련반을 신설하고, 60대 이상의 성도들 중에서 실버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실버 제자훈련반에서 훈련받게 한다.

이 때 평신도 제자훈련반의 과정보다는 과제물을 줄이고 조금 더 쉽게 해서 훈련 받는 성도들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실버 제자훈련반을 마친 성도들을 중심으로 실버 소그룹을 세우고 운영한다. 실버 소그룹은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고, 오전에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영화 상영, 건강 강좌, 문화유산 견학)을 한다.

2. 도입기(2018년 ~ 2019년)

가정교회의 소그룹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정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면 이제 가정교회의 소그룹 체계를 교회 안에 조금씩 도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고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이다.[125]

그렇기 때문에 북문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현재 소그룹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가정교회의 소그룹을 먼저 부분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교회 안에 전통적인 소그룹(구역) 중에서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 기간 중에 소그

125) 박은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17.

룹 리더 부부와 함께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를 한 소그룹은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로 전환한다. 그리고 부부 소그룹이나 남성 소그룹 중에서도 가정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정교회의 소그룹과 비슷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바로 가정교회로 시작해도 될 것이다.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소그룹의 명칭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목장의 리더는 목자가 되고, 리더 부부가 함께 목자로 임명받는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목원'이 된다. 그리고 목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성도를 '예비목자'라고 한다. 그리고 목원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계, 새가족, 찬양, 전도, 선교, 생일, 친교, 중보기도 등에 대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모일 때 반드시 매주 한번씩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도록 한다. 만약 명절이 있을 때는 날짜를 바꾸어서 잠깐이라도 반드시 모여야 한다. 또한 가정교회의 진행은 부부 소그룹에서 했던 것과 같이 식사 교제, 찬양, 삶의 나눔, 말씀 나눔, 중보기도, 선교지 나눔(선교 헌금), 목장 소식, 파송기도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목자가 볼 때 삶의 나눔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마지막 순서에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가정교회를 위해 준비를 했던 소그룹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매주 쉬지 않고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담도 계속해서 모이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 전도하는 목장으로

가정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목자들과 목원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126]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새생명축제라고 전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함께 전도

12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04.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이다.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정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목장 모임 때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가정교회 모임도 항상 전도를 생각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장을 방문했다면 평소에 했던 모임 순서를 바꾸어서 새롭게 참석한 사람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래 모임 순서와 상관 없이 새로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주면서 목원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모임을 끝낸다.[127] 그리고 목장 모임에 새로 온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참석하게 되더라도 갑자기 원래 목장의 진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목원들과 충분히 친숙할 때까지 교제와 나눔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면서 새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충분히 들어주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참여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앞으로도 목장 모임에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교회를 통한 전도는 관계성에 기초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새롭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평소에 만나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 보라"고 말을 하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는 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자체가 선뜻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는 교회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사랑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생명축제와 연결해서 목장에 나오고 있는 새가족을 새생명축제 때 인도하게 되면 영접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12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04.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정교회의 전도는 목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전체 목원이 함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전도하는 것이다.

다. 선교하는 목장으로

북문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선교는 주로 교회 안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인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주된 사역은 성도들이 작정해서 낸 선교헌금을 해외 선교사들에게 선교후원금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는 직접 목장에서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선교사들을 한 명씩 후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목장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목장 이름을 지을 때 선교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 교회에서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가정교회에서도 선교를 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28] 그래서 목장에서 처음에 후원하는 선교사를 정할 때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목장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교회에서 그동안 선교 후원을 했던 선교사나 아니면 목장의 목원들과 관계가 있는 선교사를 선택하면 된다. 목장에서 만약 선교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각 목장마다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할 때 먼저 기도 후원부터 하도록 한다. 목장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를 금전적으로 도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목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교사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해야한다고 하는 지침으로 자발적인 마음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기도후원과 함께 선교사의 편지를 통해서 선교지의 사정을 알고 난 뒤에 목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금전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각 목장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를 금전적으로 돕는 것을 교회에서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매칭 제도를 활용한다. 만약 어느 목장에서 한 달에 5만원을 선교지에

12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13.

보내기로 하면 교회 선교비에서 5만원을 더 보태어 10만원을 선교지에 송금하는 것이 매칭 제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장에서 한 달에 10만원을 선교지에 보내기로 하면 교회에서도 10만원을 더 보태어 한 달에 20만원을 선교지에 후원하는 것이다. 물론 매칭하는 상한선은 필요하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129]

그리고 목장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하면 주일 오후예배를 통해서 목장선교 헌신예배를 드린다. 목장선교 헌신예배를 통해서 목장의 목원들이 직접 성도들에게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교회 성도들도 그 목장이 어떤 선교사와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목장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의 마음을 다시 결단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을 때 소그룹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모습이 가정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면서 목장의 목원들 모두가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각 가정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정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선교의 역량도 계속 커지게 될 것이다.

라.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목장으로

목장 모임의 핵심은 삶의 나눔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삶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130]

목장 모임 속에서 나눔의 시간이 되면 목원들은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나 기도 응답 받은 것, 그리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 일상의 삶을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인도로 목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때 어떤 목원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때 목자는 그 목원의 이야기를 목

12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15.
130) Ibid., 81.

원들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함께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목원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목원이 다른 목원들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목장의 목원들의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던 목원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이렇게 한 목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목원 전체가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자 부부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감수성 훈련이나 인간관계훈련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훈련에 대한 내용은 뒤의 2절에 나오는 심화된 훈련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전환기(2020년)

가정교회를 준비하는 기간(2~3년)과 도입하는 기간(2년)을 거치면서 교회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교회 전체 소그룹을 가정교회로 전환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다. 적어도 40명~50명의 준비된 목자들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부임하고 난 뒤 바로 시작했던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꾸준히 계속했을 때 2020년에는 40~50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배출되어서 가정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가. 선택과 집중

목장을 인도할 목자 부부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의 그 방법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원하는 목자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전에 교회 전통적인 소

그룹에서는 교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소그룹(구역) 안에 성도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그룹을 세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소그룹에 배치되었을 때 그 모임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목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목장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목자 후보자들에게도 성도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해 준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자 후보자들을 직접 선정할 때 목자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4명까지 적어 내도록 한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자 후보자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적은 종이를 모아서 목회자가 분류를 할 때 한 목자 후보자에게 신청한 성도들이 몰릴 때에는 새로 믿었거나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131] 그렇게 해서 선택한 목자 후보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함께 한 목장으로 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목장 모임에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목장이 안정된 모습으로 정착될 때까지 다른 목회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자제한다.

나. 목자 임명식

교회 소그룹이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면 목장을 인도할 목자 임명식을 거행한다. 목자 임명식을 통해서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이 가정교회를 세워갈 중요한 사역임을 성도들이 다함께 인식하게 되고, 목자들은 교회 전체 성도들 앞에서 목자 임명을 받음으로써 목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주일 예배 중에 목자 임명식을 하는데 목자로 임명받을 목자 후보자들은 임명식 때 회중들 앞에서 목자선서를 하고 담임목사에게 기도를 받는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목자가 인도할 목장을 성도들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미리 영상으로 기록해 둔 목자들의 소감을 성도들과 함께 보고 나서 전체 목자들이 헌신의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순서를 마친다.

---

131)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3.

다. 목장 축제

새롭게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전환하고 나서 아직은 만남과 교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장 모임이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목장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목장의 시작을 축하하는 목장 축제를 연다. 목장 축제는 가정교회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날 즈음 주일 오후에 배 시간에 진행할 수 있다. 목장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각 목장별로 예배실로 들어온다. 찬양과 격려의 말씀에 이어서 목장별 순서를 진행하는데 순서가 되면 그 목장은 목원 전체가 앞으로 나와서 목장 이름과 목자, 목원들을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고, 미리 목장에서 준비한 목장 구호를 목원들이 함께 외친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목장 소개를 할 때 함께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목장 중에서 목장 모임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목원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성도들 앞에서 목장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한다.

4. 정착기(2021년 ~ 2023년)

가정 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첫째는 가족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이고, 둘째는 성경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성경공부 과정이고, 셋째는 은혜로운 주일예배이다.[132] 체계적인 성경공부 과정은 다음 2절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착기에서 목장이 어떻게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어떻게 은혜로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

가정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소그룹보다 소그룹 인도자의 헌신이 더 요구가 된

132) 가정교회 사역원, *제 7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자료집*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사역원, 2011), 23.

다. 매주 쉬지 않고 모이는 목장 모임을 목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목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목장의 목원들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목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목자가 자신의 집을 목장 모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식사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때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목자의 심정과 정성스런 모습이 목원들에게 전달될 때 목원들은 목자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목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목장에서의 나눔이 더 깊어지면서 서로의 삶과 문제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목자의 헌신이 목자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시간이 나는 대로 목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만약 목자가 지쳐 있다면 위로하면서 다시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필요하다. 목자들은 목회자와 함께 식사하고 격려받는 것으로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 목자를 지원하는 초원 모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자의 헌신으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목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삶과 목장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필요한데, 그 모임이 초원 모임이다. 5개의 목장의 목자 부부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의 초원 모임이 된다. 그리고 초원 모임의 리더를 목자 부부 중에서 세우는데 여기서 세워진 부부를 초원지기라고 한다. 초원지기는 초원 모임에서 목자들의 삶과 목장에서의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목자 부부를 격려하고 위로한다.[133] 목장에서 목자들은 목원들을 섬기고, 격려하느라 목자 자신은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초원 모임에 와서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을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목장에서의 애환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 받으면서 다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

133) 가정교회 사역원, *제 7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자료집*, 26.

초원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초원지기는 목자들의 상황과 목장의 상황을 잘 기록하여서 담임 목사와 초원지기들의 만남 때(평원 모임) 함께 나눈다.[134]

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가정교회의 목원들이 가정교회로 모일 때는 목장에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모든 목장이 연합하여 드리는 주일예배 속에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여 공식적인 기도모임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시간 중에도 기도팀에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세워간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순서는 바꾼다.[135] 예를 들면 지금도 북문교회 주일 예배 순서 중의 앞의 찬양의 시간이 있지만 두 곡 정도로 하기 때문에 찬양의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 후에 목회자 기도로 연결되지만 설교 말씀에 관련된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가능하면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회 안의 훈련 과정을 수료할 때와 새롭게 목자 임명을 할 때 그리고 목장 목원들의 삶 속에서 간증할만한 일들이 있을 때의 간증을 예배 중에 하게 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 분가

목원의 숫자가 12명이 넘으면 분가를 해서 가정 교회를 둘로 나눈다. 그 전에 분가를 준비하면서 목자 훈련(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예비 목자'라고 부른다. 예비 목자는 목원들이 추천하여 교회에서 임명한다.[136]

---

134) 가정교회 사역원, *제 7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자료집*, 26.
135) Ibid., 25.
13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91-92.

분가의 원칙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모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비 목자가 새로운 가정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분가의 방법은 목장의 전체 목원들을 반반씩 나눌 수 있다. 아니면 예비 목자는 원래의 목장에 남아서 목자 역할을 하고, 목자가 한 두 가정과 함께 나와서 목장을 개척할 수 있다. 목자가 개척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예비 목자가 힘들어하는 목원가정을 데리고 나아갈 수도 있다. 목장을 나가는 가정과 남는 가정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해도 바람직하다.[137]

그러나 전통적인 소그룹 속에 오래 있었던 성도들은 가정교회의 분가를 싫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소그룹 속에서 그룹원들과 오랫 동안 함께 해 온 친숙함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원들 중에는 이제 목장이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왜 분가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생명력은 나눔에 있는데, 목원의 수가 12명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깊이 있는 나눔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목장의 전체 가족이 12명이 넘으면 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가를 하고 나서 둘로 나뉘어진 가정교회는 전도에 힘을 기울여서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할 것이다. 나뉘어진 두 목장은 가정교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인원들만 남았기 때문에 목자와 목원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다시 가정교회에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목장이 부흥하게 되면 분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함께 할 것이다.

5. 성숙기(2024년 ~)

가정교회가 무리 없이 잘 정착이 되면 건강한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성숙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그룹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원의 은사가 발견되어진다.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목장과 교회에서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깊이 있는 나눔의 모습이 목장 밖으로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져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 또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더 적

13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92.

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감당하게 된다.

가. 은사 발견을 통해 사역하는 가정교회

은사(spiritual gifts)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약 1:17).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 일할 때 행복하다.[138]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소그룹과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은사에 따라서 목장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자신의 은사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은사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소그룹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

가정교회 안에서 목원들 모두가 자신의 은사에 맞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은사를 통해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안에서 목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학교를 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깊어질 때 목장 안에서의 결속력이 목장 밖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된다. 교회는 가정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원할 때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겼던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교회가 목장과 지역사회의 경제적으로

138) 조용기, *은사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9.

어려운 가정을 자매결연으로 맺어주어 목장의 목원들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 전체의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과 기관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목장마다 바자회 물품을 정하게 하고, 목원들이 바자회를 함께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목장을 너무 이끌어가지 않도록 가정교회에게 권한을 주고, 목장이 지역사회 봉사를 원할 때 교회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해야 목장 스스로 지역사회를 꾸준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목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의 목장 모임은 서로가 친숙하기 위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지만 목장이 잘 정착이 되면 나눔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로 옮겨진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목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장이 정착이 되고 목원들의 인원이 전도로 인해 증가하게 되어서 분가를 하게 되면 분가하게 되어서 나뉘어진 두 목장은 분가하기 전의 목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전도에 힘을 쓰게 된다. 그래서 목장에 새가족이 들어오고 다시 목장이 잘 세워지게 되면 이러한 목장의 모습에 다른 목장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목장들은 '전도 - 분가 - 전도'의 계속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가정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에 열정을 품게 된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정교회가 정착할 때까지의 선교는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편지를 받는 모습이었다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에 대해서 목장에서 계속 나누게 되었을 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를 목장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목장에서 직접 선교 계획을 세워서 선교지 방문과 선교사를 돕는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목장에서 단기선교를 준비할 때 교회에서는 선교학교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목원들이 선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목장에서 선교를 가기

전에 주일예배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의 사정과 선교의 현황을 살피고 돌아오게 되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예전보다 더 열정적인 선교 후원과 선교 계획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다녀온 목장은 주일오후예배 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단기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원들이 함께 선교의 열정을 계속 품고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목장에게 도전을 주어서 교회 전체가 선교에 함께 하는 모습이 된다.

제 2 절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 세우기

가정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정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다. 목자의 신앙과 인격과 소그룹 리더로서의 준비된 모습이 목장을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우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가정교회의 리더인 목자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자훈련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심화시킨 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에서 목원들과 함께 진행하면 좋은 과정이지만 목자 혼자서 하기 힘들 때 도와주는 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1. 심화된 제자훈련 과정

본 연구자가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것은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말씀 훈련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의 훈련과 삶을 나누는 관계 훈련은 잘 되지만 훈련자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에 대하여 다루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은 약하다. 그런데 만약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가 자신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소그룹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의 후속 과정으로 내적치유 세미나와 상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상담자 훈련

상담학자 로저스(Carl Ransom Rogers)는 "효과적인 상담이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39] 그리고 목회상담학자 클라이벨(Howard J.Cline bell)은 "모든 치료와 성장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며 상담은 인간성의 신청한 차원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확실성과 생동감을 불러 일으켜 우리의 숨은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인간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집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말한다.[140]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물결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간 소외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소그룹 구조는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내를 들어내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목회상담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교회에서의 상담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141]

특히 소그룹 리더는 상담자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를 지닌다. 교회가 대형화 될수록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시간을 들여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는 매주 그룹원들과 일정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룹원들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곁에 함께 서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적절하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소그룹 리더들의 상담자 훈련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북문교회 소그룹 내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것이다. 매주 10주 과정 훈련으로 이루어지며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고 소그룹 인도를

---

139) Carl Ransom Rogers, *카운슬링의이론과실제*, 한승호 역 (서울: 집문당, 1991), 30.
140) Howard J.Cline bell, *성장상담*, 이종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7.
141)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13-14, 22-23.

맡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리더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는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제자훈련과 상담자의 자질 등의 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왜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는 상담 훈련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필요한 자질에 대해 배우게 된다. 2, 3주는 상담이론 전문가를 초청하여 상담의 일반적인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2주에 걸쳐 배우게 된다. 4주부터 9주까지는 소그룹 리더로서 상담자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상담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체험하도록 한다. 경청훈련, 심정대화훈련, 공감훈련, 주도성 훈련, 자각 훈련, 직면 훈련 등에 대해서 이론적 강의와 함께 실제적인 훈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주는 상담실습 시간을 통해 서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내담자,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실습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문교회 상담자 훈련의 실제 모델은 북문교회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주경훈의 일대일 제자훈련 지도자를 위한 상담 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련 모델을 참고 하였다.[142]

〈표 8〉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실제

주	주 제	목적과 내용
1	제자훈련과 상담	리더의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배운다.
2	상담 이론 1	전문 상담가를 초청하여 일반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3	상담 이론 2	
4	상담의 실제 훈련 - 경청	경청 훈련
5	상담의 실제 훈련 - 심정대화	심정 대화 훈련
6	상담의 실제 훈련 - 공감	공감 훈련
7	상담의 실제 훈련 - 주도성	주도성 훈련
8	상담의 실제 훈련 - 자각	자각 훈련
9	상담의 실제 훈련 - 직면	직면 훈련
10	상담 실습	지금까지 배운 훈련들을 토대로 2명씩 짝을 이루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 실제 상담 실습을 한 후에 발표, 피드백을 통해 분석,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142) 주경훈, "일대일 제자훈련 지도자를 위한 상담 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대학원, 2010), 2.

훈련의 형식은 한 회를 진행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1주부터 3주까지는 이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4주부터 10주까지는 강의와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실제적인 시간 배분은 다음과 같다.

(1) 한주간의 삶 나누기 10분
(2) 찬양 및 기도 10분
(3) 강의 및 실습 50분 ~ 90분
(4) 느낀점 및 평가 20분
(5) 마무리 및 기도 10분

상담의 실제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경청, 심정대화, 공감, 주도성, 자각, 직면 등이 있다. 첫 번째 훈련 요소인 경청이란 단지 상대방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의 언어 뿐만 아니라 그의 표정, 행동, 눈짓, 손짓 같은 비 언어적인 것까지 읽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의 주의 깊은 경청은 소그룹원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 자신의 대화를 깊이 들어주는 리더자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그를 믿고 자신의 깊은 곳에 문제를 꺼내놓게 한다. 그러므로 주의 깊은 경청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훈련 요소인 심정대화란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주는 대화를 말한다. 심정이란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心과 정서를 뜻하는 情의 합성어로 '마음 속에 있으며 마음으로 느껴진 정서'를 말한다.[143]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심정대화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감정으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리더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따뜻함을 느끼게 될 때 그룹원들은 자신을 다 받아줄 것 같은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훈련 요소인 공감은 "감정이입"(empathy)을 의미한다. 영어의 'empathy'

143) 최상진, *한국인의심리특성*, 현대심리학의이해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학문사, 1997), 695-766.

는 고통과 같은 깊고 강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희랍어 “pathos”라는 단어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em”을 합성한 단어이다.[144] 즉 내담자의 아픔과 상처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담자가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으로 들어가서 그의 문제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경험 감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145]

네 번째 훈련 요소인 주도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주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주도적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도성 개발을위해 주도성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진다. 둘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연습하다. 셋째,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되 미래결과를 예측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연습을 한다.[146]

다섯 번째 훈련 요소인 자각은 현재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느낌 또는 사고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체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자신의 욕구나 감각, 감정, 생각, 행동, 신앙과 믿음, 환경,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다.[147]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훈련 요소인 직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직면에는 자기직면과 타인직면이 있는데, 자기직면은 자기 스스로가 주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며 고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직면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학소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배려하면서 그의 문제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148]

---

144) Rollo May, *카운슬링의기술*, 이봉수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67.
145) 오성춘, *목회상담학*, 87
146) 심수명, *인간관계 훈련*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08), 39.
147) Ibid., 51.
148) 김대환, "교회 소그룹에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05), 105.

나. 내적 치유 훈련

본 훈련 과정은 북문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내적 치유 과정이다. 내적치유는 넓은 의미와 집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내적 치유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감으로써 일어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다. 또한 집중적인 의미, 즉 여기서 말하는 내적치유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이다.[149]

내적 치유 훈련의 목적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자리잡고 굳어져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갖고, 서로의 감정과 아픔을 공유하며, 개방적인 피드백을 통해 소그룹 안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좀 더 친밀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내적 치유의 관점에 근거하여 상한 감정의 뿌리를 탐색하고, 간증과 피드백, 칭찬과 격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것을 고려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150]

이 과정의 전체 내용은 상한 감정의 뿌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강의를 한 후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내적 치유 훈련은 8주에 걸쳐 진행이 되고 주마다 2시간씩 진행한다. 인원은 6명으로 제한하며 동성 그룹을 원칙으로 한다.

과정을 진행할 때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또한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는 감정과 느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우며, 나의 아픔과 상처는 창피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낸 만큼 치유가 일어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은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공동의

149) 주서택. 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1997), 33.
150) 이정희,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3), 32.

관심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힘쓴다.

과정의 진행내용은 1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 과정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각자 이곳에 와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나 치유받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돕는다. 진행 방법은 30분 동안 인도자의 인도로 먼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석자 각자가 이 시간을 통해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30분 동안 인도자의 강의와 간증을 한다. 강의 내용은 내적 치유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왜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용하게 하며,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뿌리에는 상한 감정이라는 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인도자 본인의 간증을 통해 치유의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30분 동안 인도자의 멘트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후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별칭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에 담겨진 의미를 서로 나누면서 자신의 별칭을 소개하고 그 별칭을 다같이 축복의 마음으로 세 번씩 불러준 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한 후 마친다.[151]

2주에서 3주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에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다룬다. 방법은 30분 동안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30분 동안 인도자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한 강의와 간증을 통해 치유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0분 동안 인도자의 멘트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상한 감정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머지 50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개방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룹원들은 그를 가운데 의자에 앉히고 그를 둘러싼 후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주

151) 내적 치유 세미나의 과정은 본 연구자가 3박 4일의 '내적 치유 세미나'(인도 : 주서택, 김선화)에 참석한 후에 세미나의 내용을 본 교회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이때 인도자는 어린 시절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묻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치유 시간에 개입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치유의 시간이 끝나면 자기 고백을 나눈 사람을 향해 피드백을 해주고 축복기도로 마친다.

4주에서 5주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에서 완전주의 콤플렉스, 두려움에 대해서 다룬다. 방법은 30분 동안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30분 동안 인도자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 완전주의 콤플렉스, 두려움에 대한 강의와 간증을 통해 치유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0분 동안 인도자의 멘트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완전주의 콤플렉스와 두려움으로 상한 감정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머지 50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개방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룹원들은 그를 가운데 의자에 앉히고 그를 둘러싼 후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이때 인도자는 어린 시절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묻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치유 시간에 개입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치유의 시간이 끝나면 자기 고백을 나눈 사람을 향해 특별히 칭찬과 격려, 수용의 피드백을 해주고 축복기도로 마친다.

6주에서 7주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방법은 30분 동안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30분 동안 인도자는 상한 감정의 뿌리 중 수치심과 죄책감, 용서의 문제에 대한 강의와 간증을 통해 치유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0분 동안 인도자의 멘트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수치심과 죄책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머지 50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개방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빈의자에 초청하게 한 후 그에게 마음 속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한다. 이때 인도자는 빈의자에 앉아서 대신 그

사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게 한 후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본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게 한다. 다시 자리를 바꾼 후 상대방의 용서의 말을 듣고 느낌을 다시 말하게 한다. 치유의 시간이 끝나면 자기 고백을 나눈 사람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피드백을 해주고 축복기도로 마친다.

마지막 8주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것을 서로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음식이나 다과를 준비한다.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한 사람씩 가운데 의자나 방석에 초청하고 그를 향해서 축복의 피드백을 해주고 축복기도 후 마친다. 자연스럽게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모든 과정을 마친다.

8주 과정의 내적 치유 훈련 통해서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는 자신의 상처가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목장의 목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낼 수 있고, 목원들의 문제와 상처에 더 세밀하게 공감하면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다.

2. 소그룹 리더를 돕는 훈련 과정

가정교회 소그룹인 목장에서 목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목장의 나눔과 사역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목원들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게 하는 감수성 훈련이나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은사 학교,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증진시키는 부부학교의 과정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할 때 목자 혼자서는 무리이다. 그래서 목회자나 그 과정의 전문가가 소그룹의 리더와 함께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 감수성 훈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희(기쁨), 노(분노), 애(슬픔), 락(즐거움)의 감정들이 있다. 이러한 감정들을 잘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목원들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수성 훈련은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주마다 2시간씩 진행한다.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감수성 훈련은 목장의 목자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한다. 12명 이하의 목자들이 한팀으로 구성되어서 훈련을 받은 후에 똑같은 훈련을 각 목장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받게 한다. 각 목장이 감수성 훈련에 참여할 때는 목장의 전체 목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주마다 2시간씩 진행한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전체 진행을 맡을 목회자나 전문가가 보조 진행을 맡을 목자와 진행에 대하여 의논을 한다. 그래서 평소에 목장 모임의 분위기와 목원들의 자기 표현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이해를 한 후에 훈련을 진행한다.

1주에는 먼저 자신을 별칭을 짓고, 왜 그 별칭을 짓게 되었는지 발표한다. 가능하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별칭을 짓게 한다. 그리고 6주 동안 훈련 속에서 만날 때는 서로가 별칭을 부른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목원들에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슬픈 느낌이 들면 "지금 나는 슬퍼요"라고 말하고, 신나는 느낌이 들면 "지금 나는 신나요", 피곤한 느낌이 들면 "지금 나는 피곤해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매주 시작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인도자가 '희, 노, 애, 락'에 대한 강의를 30분 정도 한다. 그리고 3명이나 4명씩 그룹을 나누고, 최근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뻤을 때와 가장 슬펐을 때와 가장 화가 났을 때와 가장 신났을 때를 그룹원들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서로 하나의 수건을 빼앗는 '수건 싸움'을 3분 동안 한다. 그리고 나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수건을 빼앗고, 빼앗겼을 때의 느낌을 나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누워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느껴본다. 그리고 나서 전체가 모여서 무엇이 느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떠올랐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모임을 마칠 때는 전체가 손을 잡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고 마친다.[152]

2주에는 인도자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말의 영향력'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그리고 감정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한다. 4명

152) 여기서 소개하는 6주 동안의 감수성 훈련 과정은 본 연구자가 경험했던 5박6일 동안의 인간관계훈련(아리랑 풀이 연구소: 대표 이종헌 박사)의 과정을 연구자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나 5명씩 한 그룹이 되어서 한 사람이 먼저 카드 하나를 집고 그 카드에 해당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말을 할 때는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카드 하나를 집고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계속 한 사람씩 이어서 말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기쁨'이라는 카드를 집어 들면서 "나는 지금 보고 싶은 목장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요"라고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이 '신남'라는 카드를 집어 들면서 "○○(별칭)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신나는 느낌이네요"라고 말한다. 그 다음 사람이 '피곤'이라는 카드를 집어 들면서 "○○님과 ○○님이 기뻐하고, 신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요"라고 말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3주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2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춤으로 표현해 본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나눈다.

4주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모두가 눈을 감고 자기 몸이 움직이는 데로 춤을 춘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춤을 추도록 한다. 춤을 추고 나서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감정을 느껴본다. 그리고 함께 느낌을 나눈다.

5주에는 '희, 노, 애, 락'의 감정 중에서 자신이 표현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감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지 생각하게 한다. 만약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면 그 사건을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면서 공감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느낌의 표현을 들은 이야기 한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인도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공감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신이 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춤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

6주에는 지금까지 훈련받은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훈련에 함께 참여했던 목장의 목원들 한 사람씩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말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내 감정은 어떤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친다.

이렇게 6주 동안의 감수성 훈련을 마친 목장의 목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예전보다 더 잘 표현하는 모습으로 목장 모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목자의 인도와 서로의 노력으로 목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자 계속 할 때 솔직한 모습으로 더 깊은 나눔을 하는 목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 부부 성장 학교

가정교회에서 부부의 관계가 소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면 목장에서 다른 목원 부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다른 목원 부부들에게도, 그리고 전체 목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목원 부부 관계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이 부부 관계의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관계 형성 능력의 향상으로 가정과 목장 안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의 목원 부부들 중에서 먼저 부부 성장 학교의 과정이 필요한 부부를 추천해서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목장 안의 나머지 목원 부부들도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목원 부부가 참석한 목장의 목자 부부도 함께 참석해서 인도자를 돕도록 한다.

부부 성장 학교의 인도는 목회자가 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체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주마다 3시간씩 진행된다. 참석 인원은 6부부(전체 12명)로 제한한다. 그리고 과정 중에 외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부부 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153]

1주에는 먼저 개회 예배를 드린 후에 부부가 함께 별칭을 짓는데, 부부의 별칭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별칭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녀와 나무꾼'이나 '해와 달'과 같

153) 부부성장학교는 본 연구자가 경험한 '부부 행복 만들기 워크샵'(한국전문심리치료원 : 대표 심상권 박사)과 '부부 성장 과정'(아리랑 풀이 연구소) 과정을 본 연구자의 교회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은 별칭들이다. 그리고 그 별칭을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서로 불러 주도록 한다. 그리고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 유형 검사)를 함께 하는데, 가능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확한 분석과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부부간에 성격유형검사 결과를 가지고 서로간의 성격과 유형 이해를 통해 나와 다른 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분석과 결과를 듣고 난 후,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주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숙제를 내주는 데, 1주 과정 숙제는 독서교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오도록 한다.

2주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What woman what" 영화를 10분 정도 편집하여 보여준다. 이 영화는 남자가 어느 날 여자들의 맘 속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남편들의 그룹와 아내들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한 남편의 이런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아내의 이런 점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아내와 남편 그룹 모두 모여서 각 그룹에서 나눈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지난 주 읽었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토대로 남자들의 심리,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10분 정도 휴식의 시간을 가진 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마주 보고 앉도록 한다. 이때 조명은 어둡게 하고 부부 사이에 초를 준비해주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서운했던 점, 미안했던 점, 이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하나씩 이야기 하도록 한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감정적 피드백(미안해)을 충분히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모든 그룹이 부부별로 큰 원형 대형으로 서게 한 후 한 가운데 대야와 수건과 의자를 마련한다. 인도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한 부부씩 가운데 나와서 부부간에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과 애찬식을 하도록 한다. 이때 조용한 음악을 준비한다. 2주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일주일 중에 한 시간 이상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숙제를 내준다. 그리고 데이트 인증 샷이나 기념품 등을 준비해오게 한다.

3주에는 각자 지난 주 데이트 인증 샷을 공개하고 기념품 등을 소개하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가졌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부부간에 간단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레크레이션은 팔씨름, 콩쥐팥쥐, 업어주기, 자기표현(별칭을 가지고 각자 자기와 상대방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을 진행할 수 있다. 3주에는 주로 몸으로 서로간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레크레이션이 끝나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유롭게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는 시간을 갖는다. 신나는 음악에서 점차 조용한 음악으로 바뀔 수 있게 하며 마지막에는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눕게 한다. 그리고 부부간에 한 사람은 눕고 한 사람은 두 손에 가득 정성을 담아서 가만히 마사지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사람이 끝나면 상대편과 바꾸어서 진행한다. 맨 마지막에 다시 둘러앉아 소감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3주 과정이 끝난 후 1박 2일 외부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안내를 한다. 숙제는 배우자에게 손 편지를 쓰는 것이다. 1박 2일 수련회는 외부 장소인 '아리랑풀이 연구소'(이종헌 박사, 양평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의뢰하여 진행한다. 준비물은 성경, 필기도구, 갈아입을 옷, 운동화, 긴 팔 옷, 세면도구 등을 준비하게 한다. 수련회 과정은 크게 4과정으로 진행되는데 1과정 <껍데기를 벗고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근감을 높이며 친화력을 돋고, 느낌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돕는 활동들이 진행된다. 2과정은 <우리 만남은> 너와 나의 만남을 체험하고 같이 느끼도록 돕는 활동들이 진행된다. 3과정은 <나, 너 그리고 부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활동들이 진행된다. 4과정은 <사랑은 약속> 부부성장과정을 돌이켜보고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들이 진행된다.

4주에는 3주 숙제였던 배우자에게 쓴 손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준비하며, 정 한가운데 꽃과 초를 준비한다. 한 쌍씩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서로 사랑의 고백과 포옹의 시간을 갖는다. 맨 마지막으로 수료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수료증 액자를 준비하여 전달한다.

4주 간의 부부 성장 학교의 과정은 부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 간의 진솔한 만남이 시작되고, 관계의 벽을 허물고 계속해서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러운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

목장의 목원 부부들이 이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부부의 관계로 세워져가

는 모습을 소망하면서 목장 안에서도 다른 부부들에게 건강한 부부상을 보여주면서 목장 모임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한 부부들을 돕고 살피는 모습으로 목장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제 3 절 요약과 정리

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북문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였다. 그래서 단계별로 수년 동안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가정교회의 준비와 도입과 정착, 그리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심화된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와 그룹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소그룹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시작은 교회의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북문교회의 전통적인 소그룹을 건강한 소그룹인 가정교회로 바꾸는 것은 쉽고 빠르게 되는 과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중요하게 인식할 때까지 차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정교회의 리더를 준비하는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나가면서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소그룹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쉬지 않고 해 나가야 할 사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6 장
결 론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한 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 고찰했다. 20세기 세계교회사에 남을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한 한국교회가 21세기 성장이 멈추고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외면한 결과인 것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북문교회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목적과 방법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폐쇄적 가족주의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무관심한 모습으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고 살펴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적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 됨'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에 대한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임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일반적인 소그룹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소그룹은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교제로 성장하는 모습임을 고찰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갖는 의미를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제자공동체와 가정공동

체, 그리고 선교공동체의 모습을 이룬 신약의 가정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적 교회의 실제의 모습을 가정교회(휴스톤 서울침례교회)와 제자훈련(화평교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가정교회가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고, 제자훈련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소그룹 리더를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북문교회의 목회적인 상황과 하고 있는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한 훈련사역과 중보기도학교와 중보기도사역, 그리고 세생명축제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5장에서는 북문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다. 전통적인 교회의 소그룹을 가정교회로 바꾸는 것은 결코 성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 속에서 소그룹 리더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북문교회의 상황에 맞는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문교회가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마음 속에 그려보면서 가정교회를 향한 준비와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제자훈련의 심화된 과정을 앞으로의 목회의 틀 속에서 세워보았다.

본 연구자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게 뛰어오른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북문교회도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게 된다.

이 논문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쓰여졌지만 건강한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다양한 방안이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그래도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정교회와 제자훈련과 같은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9.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김대환. "교회 소그룹에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05.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1.

김이곤. *창세기.* 서울 : 전망사, 1993.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1.

심수명. *인간관계 훈련.*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08.

박은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방현덕. *기독교 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85.

역사편찬부. *북문교회 50년사.* 청주: 북문교회 역사편찬부, 2002년.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유진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울: 두란노, 2009.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이정희.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3.

장로회신학대학 다원화목회연구원. *기독교 가족상담.*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2.

조용기. *은사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조태환. *환희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주경훈. "일대일 제자훈련 지도자를 위한 상담 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대학원, 2010.

주서택. 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1997.

최영기. "가정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화평교회. *제15회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자료집*. 2014.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제 30차 목회자 초청 가정 교회 세미나 자료집*.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사역원, 2006.

_____. *제 71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자료*.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사역원, 2011.

최상진. *한국인의심리특성*, 현대심리학의이해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학문사, 1997.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자자훈련원, 37-38.

최상태.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 서울: 국제재자훈련원, 2014.

2. 번역서적

Banks, Robert.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서울: 여수룬, 1991.

Banks, Robert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2003.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Branic,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Clinebell, Howard J. *성장상담*. 이종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Collins, Gary R.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84.

Com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Frazee,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선교회, 1998.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Mallison, Joh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May, Rollo. *카운슬링의기술*, 이봉수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Rogers, Carl Ransom.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 서울: 집문당, 1991.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Shenk, David W & Stutzman, Ervin R.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Snyder,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서울: IVP, 1995.

_____.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Watson, David.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Whitney, Donald S.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3. 외국서적

Zdero, Rad. *Nexus: The World House Church Movement Reader.*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7.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Urbana: Albatross, 1986.

Vita of

Cha H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Bukmun Church, Chungju

Personal Date

Birthdate :	January 12, 1967
Marital Status :	Married to In Hye Moon with one Children Jong Yoon Lee
Home Address :	#201-Na Pyounghwa Apt, YoungDong, SangdangGu, Cheongju City, Chungbuk
Denomination :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Ordained :	Nov 23, 1999

Education

B. A. :	HanShin University, Osan, 1990
M. Div. :	Han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7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Bukmun Church, Chungju
11/2001 to 11/2008:	Assistant Pastor of U-Am Presbyterian Church, Cheongju
11/1999 to 11/2001:	Assistant Pastor of SeoulSungNam Church, Seoul